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碩士學位論文

殘雪의 ≪黃泥街≫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李 修 旼

2019年 6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殘雪의 ≪黃泥街≫ 연구

指導敎授 趙 洪 善

李 修 旼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9年 6月

李修旼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趙洪善 印

委 員 金思希 印

委 員 趙洪善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9年 6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 Study on Can Xue's HuangNiJie

Sumin Lee
(Supervised by proferssor Hong-Sun Ch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Literature

2019.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Sheong-Shik Cho
Eun-Hee Kim
Thesis director, Hong-Sun Cho, Prof.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2019. 6.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中文摘要

本文以残雪的《黄泥街》为研究对象，通过小说的具体内容，认识作品的表现方式，分析小说的主题主旨，以及探索作家受的内、外影响，从而寻找作品的独特价值。

全文除“导论”和“结论”外，共分三章。

第一章是简单介绍作家的生平与作品。通过作家的幼年时期了解到作家残雪的个人性格，认识先锋小说的意义寻找《黄泥街》对先锋小说的价值。最后得知残雪对世界的评价和作家的基本倾向，以及作家成长过程中所经历的生活困难和政治状况。

第二章是研究《黄泥街》的表现方式特色。残雪用无意识和让人憎恶的描写叙事的表达方式使读者感受到他的独特风格。另外,受文化大革命的负面影响,小说中处处充斥着隐喻的表达,展现了受到现代主义影响的先锋。

第三章是分析作品的主题。本文是作为中国社会的负面告发和无意识的表现，从中可以找到作者为克服当时中国社会的丑恶而集中于无意识的凄惨生存信。

关键词：黄泥街；残雪；先锋小说；无意识；文化大革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차>

I. 서론 ····· 1
1. 연구개황 ····· 1
2. 연구목적과 방법 ····· 3
II. 作家와 作品 소개 ····· 4
1. 殘雪의 일생 ····· 4
2. 作品 소개 ····· 6
III. 표현적 특색 ····· 13
1. 무의식과 혐오 표현 ····· 13
2. 은유적 표현 ····· 19
IV. 주제 분석 ····· 31
1. 중국사회 고발 ····· 31
2. 作家의 무의식 표출 ····· 39
V. 결론 ····· 4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론

1. 연구개황

殘雪의 小說에 대한 평가는 1987년부터 정기 간행물에서 조금씩 이루어졌고, 2000년 이후 석·박사 연구생들의 연구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비록 중국내 殘雪에 대한 연구는 다른 有名作家들에 비해서 활발한 편은 아니나 매 논문의 각기 다른 주제와 해석은 小說의 예술적 생명이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중국논문 사이트 中國知网에서 보이는 939건의 殘雪관련 연구물들을 분석해보면 크게 3가지 주제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小說의 서사 구조 연구이다.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先鋒 作家 殘雪의 서사적 구조는 매우 독특하다. 백일몽과 같은 황당한 서사방식은 기존의 다른 作家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었으며, 作家 개인적인 성장 경험이 더해져 더욱 독특해졌다. 先鋒小說은 서사적 기교를 탐색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형식연구와 小說스타일연구 그리고 표현방식 등의 서사구조에 대한 논문들이 가장 많았다. 전체 편 수중 59.5%에 달하며 학위논문 중에는 申哲輝의 <殘雪小說創作方法研究>[1]와 李寒梅의 <論殘雪小說中的身体叙事>[2] 그리고 代苗雪의 <論新世紀殘雪小說創作的變化>[3]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어떠한 서사방법으로 소설을 창작했고 殘雪의 전기소설과 후기소설을 비교해보았을 때 나타난 서사적 변화가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두 번째는 그녀의 정신 탐구였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정신분석학을 운용하여 소설을 쓴 당대作家들 중에서도 특출한 사람.”[4]이었기 때문에 연구생들은 그녀의 비관의식과 심미관, 영혼, 무의식 등을 주제로 그녀가 小說에서 정신적으로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다. 관련 학위논문으로는 張會利의 <殘雪文藝思想研究>[5]나 馬海霞의 <巫楚文化的現代形態－－殘雪小說的文化意蘊>[6]과 王琴琴의 <非理性主義与殘雪小說>[7]이 있다. 정

1)申哲辉,<残雪小说创作方法研究>, 南京师范大学,2006.
2)李寒梅,<论残雪小说中的身体叙事>, 南京师范大学,2014.
3)代苗雪,<论新世纪残雪小说创作的变化>, 安徽师范大学,2015.
4)張浩 <20世紀中國女性文學的精神分析話語分析>, 北京語言大學,2004,133쪽.
5)张会利,<残雪文艺思想研究>, 牡丹江师范学院,201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신 탐구의 논문들은 주로 楚國의 무속신앙 영향 아래 자라난 殘雪의 정신에 대한 탐구와 그녀의 소설 안에서 드러난 비이성에 대한 정의와 문예사상에 대한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는 서구 문학이 그녀에게 끼친 영향과 관련된 학위논문으로 주로 카프카(Franz Kafka, 1983-1924)와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 1899-1986)가 그녀에게 끼친 영향이 주된 주제이다. 司見南의 <卡夫卡与殘雪小說中荒誕意識及其呈現方式的比較>[8]와 何成의 <卡夫卡小說對殘雪小說的影響>[9], 黃玲의 <殘雪對卡夫卡小說模式的接受与變异>가[10] 대표적이다. 그 외에, 殘雪이 서구 문학에서 받은 영향을 연구한 姚莹珺의 <殘雪小說中的外國因素>[11]와 같은 학위논문이 있다.

한국 국내에서는 김경남의 <찬쉐(殘雪) 小說론>[12]과 손미령의 <殘雪의 모더니즘 小說연구>[13] 및 <殘雪小說의 정신분석학적 연구>[14] 그리고 송세봉의 <殘雪의 文革 敍事>[15]가 전부이다. <찬쉐(殘雪) 小說론>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나온 殘雪에 대한 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1980년 중국문단의 상황과 殘雪 小說의 특징을 간단하게 서술하였으며 중국적인 색채를 가득 머금고 있는 殘雪의 독창성을 분석했다. <殘雪의 모더니즘 소설 연구>는 내용적 특징과 다양한 서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찬쉐(殘雪) 小說론>의 확장판이라고 여겨질 만큼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殘雪 소설의의 정신분석학적 연구>는 프로이트의 정신증 이론을 중심으로 등장인물들의 정신병을 분석한 내용이다. <殘雪的"文革"敍事>는 중국어로 작성되었으며 ≪黃泥街≫·≪山上的小屋≫·≪思想匯報≫ 세 作品을 중심으로 文化大革命이후 殘雪이 小說에서 그려낸 文化大革命의 흔적을 간단히 분석한 내용이다.

---

6)马海霞,<巫楚文化的现代形态>, 河北师范大学,2002.
7)王琴琴,<非理性主义与残雪小说>, 辽宁师范大学,2012.
8)司见南,<卡夫卡与残雪小说中荒诞意识及其呈现方式的比较>,内蒙古师范大学,2008.
9)何成,<卡夫卡小说对残雪小说的影响>,南昌大学,2011.
10)黄玲,<残雪对卡夫卡小说模式的接受与变异>,湘潭大学,2010.
11)姚莹珺,<残雪小说中的外国因素>,华中师范大学,2008.
12)김경남,<찬쉐(殘雪)소설론>, ≪중국연구≫제33권,2004.
13)손미령,<殘雪의 모더니즘 소설 연구>, 한국외국어 대학교,2006.
14)손미령,<殘雪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프로이트의 정신증 이론을 중심으로>,한중언어문화연구 제20권,2009.
15)송세봉,<残雪的"文革"叙述>, ≪한중언어문화연구≫ 제20권, 200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연구목적과 방법

殘雪의 처녀작인 ≪黃泥街≫의 곳곳에는 文化大革命의 흔적이 묻어나오며 그녀는 이 시기에 받았던 무수한 상처들을 글을 통해 드러냈다. 또한 다른 先鋒作家들처럼 '해체'의 특징을 사용하여 글을 집필하였지만 무의식의 표현과 기존의 先鋒作品들과는 다른 혐오의 행동을 표현하여 다른 作品들과는 다른 개성을 지니게 되었다. 기존의 연구물들에는 殘雪의 小說을 한데 묶어 그 공통점을 서술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채택되었다. ≪黃泥街≫만을 대상으로 文化大革命과 先鋒小說적 특징 그리고 무의식과 혐오의 행동을 분석한 석·박사 연구생들의 논문은 중국에서는 많지 않으며 한국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를 하게 되었다.

첫 장은, 作家의 일생과 作品 ≪黃泥街≫를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어린 시절의 성장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그녀가 당시 중국사회와 가정환경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자라났으며 이러한 상황이 小說作家로서의 성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先鋒小說인 ≪黃泥街≫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줄거리 설명과 先鋒小說의 특징을 살펴보아 해당 小說의 先鋒小說적 특징을 알아보고 분석하였다.

두 번째 장은 ≪黃泥街≫에 나타난 무의식의 표현과 혐오의 표현을 소개하였다. 殘雪의 다른 作品 그리고 先鋒小說 作家들의 作品과 다른 점을 찾고 ≪黃泥街≫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기존 논문에서 간단하게만 진행되었던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은유적인 표현들을 더욱더 자세하게 탐색하고 실제 중국의 정치 사건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 장은 주제를 분석하였다. 그녀가 무의식을 표출해내어 作品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黃泥街≫에 드러난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을 중심으로 중국 사회에 대한 고발과 무의식의 표출의 방법이 주된 내용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I. 作家와 作品 소개

1. 殘雪의 일생

殘雪의 본명은 鄧小華이며 1953년 長沙에서 태어났다. 필명의 의미는 “모든 눈이 녹아버려도 홀로 녹기를 거부하는 눈, 高山의 눈처럼 순정하지만 밟혀 더러워져 버린 눈이다”[16] 그녀는 단편<污水上的肥皂泡>를 1985년 잡지 ≪新創作≫ 제1호에 처음으로 발표한 이래, 短篇小說 <山上的小屋>·<阿梅在一个太陽天里的愁思>·<公牛>, 中篇小說 ≪黃泥街≫·≪蒼老的浮云≫, 長篇小說 ≪突圍表演≫ 등 을 발표하였으며 1988년에 중국 作家協會에 가입했다.

殘雪은 우여곡절이 많은 유년기를 보냈다. 어렸을 적 그녀의 집안은 지식인 계층이었다. 아버지는《新湖南報》[17]의 사장이었고 어머니도 역시 신문사에서 일을 하였다. “아버지는 당에 충성하는 열성당원이었지만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1957년에 ‘新湖南報右派反党集團’의 두목으로 몰려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18] 그 후부터 殘雪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그녀의 집안사람들을 적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도저히 그녀를 키울 여건이 안 되자 湖南에 살고 있는 그녀의 외조모에게 보내 같이 생활하게 하였다. 외조모는 그녀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로 점성술이나 귀신 숭배와 같이 초자연적인 상태의 것을 믿는 楚巫文化에 빠져있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외조모와 함께 집 천장의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은 그녀의 ‘영혼’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19]고 말했다. 어린 시절 殘雪의 이러한 경험은 트라우마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이러한 영향은 무의식적으로 殘雪의 소설에 반영되어 공포스럽지만 몽환적인 독특한 개성을 드러냈다. 외조모는 殘雪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였고, 그녀를 보살피다가 1961년에 餓死하고 말았

16)거훼이외,김영철 译,≪깡디스 산맥의 유혹≫, 나남출판사, 2011, 245 쪽.
17)현재의 명칭은 ≪湖南日报≫이다.
18)≪黃泥街≫,花城出版社,2013. “作家简介”
19)董外平· 杨经建,<论楚巫神秘主义与残雪的小说创作>,中国文学研究,2011. 3 쪽 “几次跟随外婆在天井里赶鬼的经验烙在了她的‘灵魂’上”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그녀는 右派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자랐으며 文化大革命이 시작되자마자 초등학교를 그만두었는데 반항적이고 예민했던 殘雪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른들이 동쪽이라고 말하면 기어코 서쪽이라고 말했고, 어른들의 모든 말에 찬성하지 않았"[20]으며 "초등학교 재학 당시 그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21] 또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복수 하는 것을 좋아했다. "어렸을 때 자신이 기른 참새를 우물가에 던져 버리고 기르던 고양이의 새끼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자 증오심에 그들의 이름을 기와조각에 써서 우물 속으로 던져버리는 저주의 행동"[22] 은 그녀가 얼마나 복수심의 불타는 아이였는지 설명한다. 그녀의 이런 성격은 어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으며 그녀가 창작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 주었다. 殘雪은 학교를 그만두고 난 후 공장을 전전하며 文學과는 관련 없는 일을 하면서 힘들게 성장하였고, 성인이 된 후에는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재봉사의 일을 시작하였다. 그녀는 갑자기 복수하겠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글을 집필하기 시작하였고, 남편이 경제적으로 도와주어 作品 활동에 전념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인터뷰내용에서 알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너무 감정적이에요. 겪었던 일들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해요.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어요. 차분히 생각해보면 복수라는 것은 너무 복잡한 것이에요. 햄릿의 복수 대상은 누구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비극을 좋아한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줄거리 때문이 아닐 거예요. '文化大革命'후에는 영화로 개봉되었었는데 저는 3번이나 봤는데도 알 듯 모를듯했어요. 지금 제자신의 마음은 햄릿과 같아요. 나는 복수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어요.

(我不知道。我現在還太情緒化了，發生過的事情歷歷在目，我總覺得非做点什么不可。靜下來，我又感到夏仇這件事實在是一件万分夏雜的事。哈姆雷特要向誰夏仇？我從小這么喜歡這个悲劇總不會只是因爲它表面的情節吧。我還記得"文革"后上演這个劇拍成的電影，我連續看了三次，似懂非懂的。現在我眞的覺得自己心里就是哈姆雷特那种感覺，我要夏仇，否則无法解脫)[23]

---

20)廖金球译,≪创作中的虛实--残雪与日野启三的对话≫，≪圣殿的倾圮-残雪之谜≫.贵州人民出版社, 1993, 426 쪽.
21)<殘雪의 모더니즘 소설연구>,13쪽.
22)<손미령,<殘雪의 모더니즘 小說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21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殘雪은 카프카나 보르헤스 같은 作家들의 책을 즐겨 읽었으며 서구의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다.[24] 그리하여 여타 일반적인 기승전결의 소설에서는 볼 수 없는 황당한 느낌의 作品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글쓰기는 가독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作品 활동 초기에는 중국내 많은 독자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殘雪의 作品에 대한 가치는 중국이 아닌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의 나라에서 먼저 알아보았다. "그녀의 短篇小說<山上的小屋>은 서구 여러 나라들의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으며, 미국의 하버드· 컬럼비아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출판사 河出書房神社가 출판한 24권의 ≪世界文學全集≫에는 중국 당대 作家들 중 유일하게 殘雪의 作品이 수록되었다."[25]

殘雪의 매력을 뒤늦게 알게 된 중국은 2000년도를 '殘雪의 小說을 읽는 해'로 지정하여 독자들에게 그녀의 小說들을 권유하였다. 陳思和는 "殘雪의 小說은 문혁 후 문학계에서 상당히 독특한 성과다"라고 평가하며 "모더니즘 언어예술과 중국의 생존 상황을 결합하며 당대 중국에서 가장 꿋꿋하고 고통스럽게 탐색하는 모더니즘 小說家가 되었다"[26]고하며 그녀만의 독특한 창조성을 인정하였다.

2. 作品 소개

≪黃泥街≫는 1986년 잡지 ≪中國≫ 제 11호에 발표되었으나 창작을 시작한 시기는 재봉사 일을 하고 있었던 1983년이다.[27] 이는 1985년에 발표한 <汚水上的肥皂泡>의 발표 보다 이른 시기이므로 ≪黃泥街≫가 殘雪의 처녀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黃泥街≫는 黃泥街라는 거리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이다.

黃泥街의 환경은 매우 심각했다. 거리에는 쓰레기와 배설물, 각종 벌레가 가득

---

23)殘雪,≪为了报仇写小说：残雪访谈录≫,湖南文艺,2003, 123쪽.

24)≪为了报仇写小说：残雪访谈录≫, 53쪽. "一九八三年写《黄泥街》，边写边看翻译的现代主义作品，喜欢卡夫卡、怀特，美国女作家——写《伤心咖啡馆之歌》的，记不得作者的名字。", "对我创作最关键最直接的影响则是八十年代西方文学的引进，不过我也只喜欢卡夫卡、博尔赫斯、贝克特的《等待戈多》，还有伍尔芙。"

25)≪깡디스 산맥의 유혹≫,245 쪽.

26)천쓰허, 노정은·박난영 译,≪중국당대문학사≫,문학동네, 2008, 357 쪽.

27)≪为了报仇写小说：残雪访谈录≫, 137쪽. "一九八三年我写《黄泥街》时我还在做衣服，带了四五个徒弟，有时来了顾客，闹哄哄的，时间被分成一小块一小块。"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했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먹거나 죽였다. 하늘에서는 검은색의 매연이 계속 떨어졌으며 비도 잘 오지 않아 후덥지근한 날씨에 주위의 모든 것들은 썩어 지독한 악취를 풍겼다. 그래서 黃泥街의 사람들은 현실도피를 위해 병적으로 잠을 자는 것에 집착했지만 소음과 여러 위협에 시달려 악몽을 꾸며 살아갔다.

이야기는 話者가 黃泥街를 찾아나서는 것에서 시작한다. 話者의 주변사람들은 黃泥街의 존재를 부정하였지만 話者는 거리의 존재를 확신하며 길을 떠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話者는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거리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만난 소년을 따라 어디론가 향했다.

어느 날 거리 주민인 齊婆는 새벽에 남자화장실 지붕에 있는 희미한 빛을 보았고 같은 시각 王四麻라는 인물은 나무에 커다란 거름통을 걸고 그 위에 들어가서 자고 있다가 그곳에서 떨어져 잠에서 깨어났다. 잠에서 깬 王四麻가 갑자기 王子光이라는 이름을 내뱉자 거리 사람은 齊婆가 본 기이한 빛이 王子光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王子光의 이름이 거론되자 거리 사람들은 黃泥街에 희망이 생겨났다고 기뻐하며 고상하고 文明人인척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王子光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실망을 하였다. 드디어 기다리던 王子光이 작은 배를 타고 거리에 도착하였지만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다. 거리사람들은 뱀 때문에 겁이 나서 창문도 없는 다락방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王子光은 실망하며 거리를 떠났다. 다음날 거리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朱幹事는 王子光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王子光이라는 것을 확신 할 수 없고 王子光이라는 인물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하며 작은 배를 타고 이 일을 보고하러 區로 떠났다. 사람들은 포기 하지 않고 도시로 들어가 필사적으로 王子光을 찾았지만 결국 죽었다는 소식만 듣게 되었다. 그들은 거리로 돌아와 희망이 없어졌다며 슬퍼하였다.

區長이 결국 王子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리로 왔다. 區長은 먼저 가장 먼저 王子光의 존재를 언급한 王四麻를 찾았지만 王四麻는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區長은 평복을 입고 몰래 시찰하며 거리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찾으러 다니지만 區長이라는 것을 알아챈 거리사람들은 그의 질문의 답을 회피하였다. 區長은 결국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고 조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초조했지만 한편으로는 더러운 黃泥街를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해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렇게 區長은 떠나고 사람들은 區長이 王四痲였다고 말하며 분노하였다. 그 후 齊婆가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을 때 그곳에 누워있는 王四痲를 발견하였고 王四痲는 거리 밖으로 도망을 쳤다.

날이 지나고 區長이 다시 거리에 찾아왔다. 그는 거리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더러운 환경 때문에 귀가 검게 변하고 얼굴에 정체불명의 것들이 자라나 겁을 먹었다. 그는 일을 해결할 의지를 잃고 거리에서 잠만 잤다. 朱幹事는 거리의 문제를 완전히 밝혀내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놓는다. 거리사람들은 평소와 같이 힘들 날을 보내다가 王四痲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話者는 따라간 소년에게서 “그런 거리는 세상에 없어요.” 라는 말을 듣고 黃泥街를 정말 오랫동안 찾아 나섰지만 죽어버린 꿈의 파편이 자신의 발밑으로 떨어져 버렸다고 생각하였다. 話者는 석양을 바라보며 이 세계는 친절하고 따듯하다고 말하며 이야기는 끝이 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黃泥街≫의 줄거리에는 기승전결이 없다. 이는 先鋒小說의 특징인 해체[28]의 표현방법 중에 하나이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줄거리 서술 방식을 해체하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중심내용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단순한 사건의 나열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줄거리의 맥락을 깔끔하게 설명 할 수 가없다. 왜냐하면 殘雪은 先鋒小說 作家이며 ≪黃泥街≫역시 先鋒小說이기 때문이다.

≪黃泥街≫은 서사구조 해체와 등장인물 해체의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서사구조의 해체이다. 줄거리의 해체와 시간의 해체가 나타난다. 小說은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인칭 시점이었던 話者의 시점이 급 변환되어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黃泥街를 서술한다. 이 액자 속에 담겨있는 黃泥街의 이야기는 기승전결이 없다. 중심내용도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줄거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렵다. 이것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해체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승전결과 결말이 해체되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만 한다. 또한 黃泥街안에서는 시간관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28)한국문학평론가협회,≪인문학용어대사전(2018)≫,국학자료원, 1761쪽 “해체’와 ‘해체론’은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해체 개념과 관련해서 데리다(Jacques Derrida)에 의해 1960년대부터 주도된 문학비평의 유파나 그 운동을 가리킨다. 무엇보다 텍스트가 지니는 기존의 개념적 위계질서의 내적 모순을 폭로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과거는 존재했지만 그 과거가 언제 존재하였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들은 항상 “오늘은 몇 년도야?”라는 질문을 하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시간은 분명히 흐르고 있지만 뒤죽박죽 하여 맞출 수 없는 퍼즐 조각처럼 되어있다. 그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며, 존재하지 않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존재하게 된다. 그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거리의 환경이 변화하고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희망하며 자신들을 위한 구원자는 없다고 쉴 새 없이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등장인물 해체이다. ≪黃泥街≫안에서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해체되어있으므로 인물분석이 불가능했다. 기존의 주인공, 조연 등의 인물형상은 등장하지 않으며 악역과 선역의 경계조차 모호했다. 주인공이 없었으므로 이야기를 이끌어갈 인물도 존재하지 않았다. 등장인물 모두 존재감이 희미했으며 그저 小說 안에서 살아하는 사람들로만 의식될 뿐, 어느 누구 특출하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王子光이라는 인물이 ≪黃泥街≫안에서 가장 많은 존재감을 가지고 있지만 여타 다른 小說에서의 주인공들과 비교해보면 존재감이 터무니없이 미비하다.

인물묘사 또한 전무하다. 黃泥街의 거리모습과 환경에 대한 묘사는 아주 세세하게 표현되어있었다. 심지어는 집들이 어떤 식으로 생겼고 상점들의 간판의 이름들은 무엇인지 각각의 대문은 어느 방향으로 나있는지 기와집의 모양은 어떠하고 벽의 종류는 무엇인지 등을 자세하게 표현하였다.[29] 하지만 등장인물들은 이름으로 그들의 성별과 나이대만 간신히 추측할 뿐 그들이 각각 어떤 식의 생김새를 하고 있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성격은 어떠한지에 대한 묘사가 없었다.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단순히 그들의 이름과 대화내용을 나열하였다. 이러한 파격적인 인물들의 해체는 인물들의 개성을 없애버렸으며 인물분석을 굉장히 난해하고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숨겨진 야망과 폭력성 그리고 非이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어 기존의 이성 관념도 해체하였다. 小說 안에서 등장하는 剃頭는 칼을 가지고 다니며 이유 없는 살인과 살해를 저지르고 다

29)≪黃泥街≫, 2 쪽. “黃泥街是一条狭长的街。街的两边东倒西歪地拥挤着各式各样的矮屋子：土砖墙的和木板墙的，茅屋顶德和瓦屋顶的，三扇窗的和两扇窗的，门朝街的和不朝街的，有台阶的和无台阶的，带院子的和不带院子的，等等。每座屋子都有独特的名字，如 “肖家酒铺”，“罗家香铺”，“邓家大茶馆”，“王家小面馆”，等等。”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닌다. 그는 홍수로 떠내려 온 잘린 팔뚝을 보며 자신이 자른 것이라고 남에게 무덤덤하게 설명한다. 또 다른 인물은 자신의 부친이 죽자 애도하지도 않고 남들이 볼까 몰래 강가에 그의 시체를 유기한다. 이러한 죄책감 없는 인물들의 형상은 정신적인 결핍이 있다는 보여주며 기존 인물형상의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모습과 상반된 모습 보여준다.

殘雪은 대표적인 先鋒小說 作家이며, 先鋒小說 作家는 실험적인 색채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모더니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作家들을 말한다. 先鋒小說을 정확하게 이해를 위해서는 서구의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의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先鋒의 뜻은 아방가르드이며 "先鋒小說 作家들은 모더니즘의 中國化를 이루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30]

"아방가르드란 원래 전선을 넘어서 적진으로 보내는 척후병이라는 뜻의 군사용어이다. 중세부터 사용되어온 이 말은 르네상스시대에 문학적으로 언급이 되었고, 문학에서의 아방가르드란 전복, 즉 가장 앞서있는 내용과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학문적인 표현방식중의 한가지로 변화하였다."[31]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겪은 서구의 文學 作家들은 현대문명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술문명을 부정하고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며 억압과 제약 등을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기존에 있었던 개념과 이미지를 완벽하게 탈피하고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형식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표현방식을 표방하고 내용적인 형식에서는 기존의 관습을 배척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32]

중국에서도 서구의 문학 作家들이 제 1차 세계대전에서 받았던 억압과 회의감을 느낄 수 있었던 비슷한 시기가 있었다. 바로 文化大革命 시기였다. 이는 중국의 현대의 文學을 논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시기이며,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 하나였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右派로 몰려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했다. 그들은 힘들어 했으며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암울한 시기에 當代作家들은 많은 좌절감과 패배감을 맛보았다.

---

30)<殘雪의 모더니즘 소설연구>, 37쪽.
31)진휘연,≪아방가르드란 무엇인가≫,민음사, 2002.
32)위의 책.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毛澤東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중국은 개혁개방을 맞게 되었고 많은 서구의 문화들이 중국내로 유입되었다. 先鋒小說 作家들은 서구의 모더니즘 作家들처럼 기존의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리하여 서구의 아방가르드와 모더니즘에서 실험적인 색채와 전통가치를 무너뜨리는 혁신적인 점을 차용하여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先鋒 作家들은 靑年作家들로, 文化大革命시기에 태어났지만 물질적 풍요와 서구개방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압박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깨고나와 표현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사회 체제의 근본적인 회의감과 반항적인 마음을 가진 靑年作家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8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는 實驗性이 강한 先鋒小說이 성행하게 되었다. 先鋒小說 作家들은 文學으로 정치를 논하거나 이성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도덕을 강조하는 傳統的文學觀에 회의를 느껴 그것을 탈피하고자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며 사회비관적인 의식을 가지고 순수한 文學과 예술을 추구했다. 또한 중국文學이 찬양하던 존엄성과 거대자아를 비판하였으며 作家의 각자의 개성을 강조였다. 그들은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作品 활동을 해나갔다. 모더니즘적 글쓰기는 중국 현지 상황에 맞춰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중국의 先鋒 作家들은 모더니즘의 '中國化'라는 성취를 이뤄내었다.

≪黃泥街≫의 줄거리는 先鋒小說의 주요 특징인 "해체"가 들어있다. 해체에는 인간의 폭력성과 잔인함을 강조해 기존에 있던 인간의 이성이나 도덕적인 관념에 대한 '인간해체'와 허구적인 역사를 만들어 현재 있는 역사의 거짓을 고발하는 '역사해체'등이 있다. 이 해체는 단순히 붕괴나 흩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토대를 흔들어 새로운 발견을 하고 그 안에 감추어진 의미를 찾거나 전혀 다른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서사방식의 혁명, 소설언어의 실험, 현실의 생존상황 3가지가 선봉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33]

울분, 반항, 고발이 키워드인 1980년대 후반의 靑年作家들은 이야기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깨뜨리고 전통적인 인물묘사 방식을 이탈시켜 기존의 것을 흔드는 이 '해체'를 사용하여 자신의 내면적인 분노를 표출하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先鋒

33)≪중국당대문학사≫, 415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小說은 폭력적이고 무심하며 잔인하고 야만적이다. 그들은 현실과 허구의 한계를 초월하며 그것을 함께 섞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만들어 자유로운 읽기를 경험시켰다. 그중 先鋒小說의 대표인물인 殘雪은 처절하게 생존해나가는 인간의 모습과 그들 사이의 불신 및 냉담을 주제로 자신의 무의식 세계를 탐구하였다. 그녀는 다른 作家들이 욕망으로만 행동하는 인물이나 폭력적인 인간 등 잔인함과 욕구해소 위주의 서술을 하는 것과는 달리, 몽환적이고 위태로운 상황 안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처절한 모습을 우울하게 표현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II. 표현적 특색

1. 무의식과 혐오 표현

1) 무의식

“무의식은 현재의 의식상태에 나타나 있지 않은 모든 심리적인 내용이다. 이는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의 정신분석이론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 중 하나이다. 남과 대화하거나, 생각할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의식의 상태와 꿈 그리고 최면과 같은 정신분석이 아니고서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의식과정에는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원적인 의식 등 이 모두 무의식에 포함된다. 무의식은 처음부터 있었거나 한번 의식했다가 뒤에 망각하거나 억압되어 뒤에 무의식으로 되어버린 것 등이 있다.”[34] 殘雪은 小說 안에서 공포심을 조성하고 억압하여 등장인물들을 무의식의 상태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무의식을 체계로 정의하면 부정과 의심, 확신의 부재, 현실에 대한 무관심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35] 殘雪의 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이 무의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黃泥街≫역시 그러하지만 그녀의 초기作品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무의식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먼저 殘雪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단편小說<山上的小屋>[36]의 주인공 ‘나’는 의심하며 모든 것을 부정한다. 주인공은 매일 밤마다 산위의 작은 집안에 갇혀있는 사람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으며 집밖에 흉악한 늑대가 자신을 물어버릴까 두려워하며, 무수한 구멍사이로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에 진저리 친다. 주인공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만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을 부정한다. 또한 어머니는 자신의 팔을 부러뜨리려고 하며 아버지는 그녀가 두려워하는 늑대무리의 일원이라고 의심하며 자신의 서랍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 가족들이며 서랍을 정리하는 것을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阿梅在一个太陽

34)≪문학비평용어 사전≫,국학자료원,2006,740 쪽.
35)장 라플랑슈·장 베르트랑 퐁탈리스, 다니엘 라가슈 감수, 임진수 譯, ≪정신분석사전≫,열린책들,2005,142 쪽.
36)<山上的小屋>, ≪人民文学≫,제 8호, 198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天里的愁思>[37]에서 주인공은 阿梅 이다. 阿梅는 특출할 것 없는 평범한 여성이며 모든 현실에 무관심하다. 어느 날 집에 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阿梅는 자신의 어머니가 주방에서 그를 유혹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뜻밖에도 남자는 阿梅에게 청혼하였고 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阿梅와 남자를 경멸한다. 阿梅는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던 청혼을 생각 없이 받아들였다. 남자는 阿梅에게 일말의 애정도 주지 않았고 각방을 썼으며, 어느 순간 말도 없이 떠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그 남자를 그리워하지도 찾아 나서지도 않았다. 시간이 지나 阿梅는 아들을 낳았는데 자신 아들에게 남 대하듯 냉담했다. 阿梅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 무지했으며 관심이 없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질투를 해도 아들이 자신을 무시해도 남편이 자신을 떠나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자신을 세계로부터 고립을 시켜도 그녀는 자신의 집이 무너질까 두려워만 할 뿐 현실을 직시하여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黃泥街≫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에서 무의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꿈'을 이용하여 무의식을 표현하였다. "무의식을 정의한 프로이트에게 꿈은 무의식을 발견할 수 있는 왕도였다."[38] ≪黃泥街≫에서 등장인물들은 병적일 정도로 잠을 자는 행위에 빠져있다. 꿈을 꾸기 위해서 잠을 자는 인물들의 묘사는 ≪黃泥街≫에서만 나타난 유일한 특징이다. 등장인물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지만 동시에 잠에 들어있다. 이러한 특징은 무의식의 존재를 더욱 쉽게 유추 할 수 있게 하였다. 깨어있지도 않고 잠들어있지도 않는 중간의 상태를 설명할 때에는 잠재의식을 떠올리기 쉽다. "프로이트 역시 청년 때는 잠재의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무의식과 용법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후에 잠재의식이라는 단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부정하였기 때문에"[39] 무의식라고 표현해야 올바르다.

朱幹事는 돼지처럼 코를 골았다. 그를 깨우고 싶지만 불가능했다. 왜냐면 그는 잠에 든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잠에서 깬 것도 아니었다.

(朱干事還在像猪一樣地打鼾，要想弄醒他是不可能的，因爲他根本睡着，但是也沒醒。)[40]

---

37)<阿梅在一个太阳天里的愁思>, ≪从末描述过的梦境≫,2004.
38)장 라플랑슈·장 베르트랑 퐁탈리스, 다니엘 라가슈 감수, 임진수 譯, ≪정신분석사전≫,열린책들,2005,142 쪽.
39)≪정신분석사전≫,382,383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진흙길은 끝나지 않을 긴 꿈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

“이 꿈을 꾸는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어쩔 때는 깨어나려고 노력해, 하지만 항상 실패하지.”

(黃泥街不能從沒完沒了的夢境里掙脫出來。……

“這夢做起來永生永世沒个完”

“我有時試一試想醒來，總不能成功”)[41]

등장인물들은 이처럼 잠에 들어있는 것도 깨어있는 것도 아닌 무의식 속에서 살아가며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실패로 돌아간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꿈속인지 현실인지 분간 할 수 없으며 그들은 이러한 의식상태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많은 인물들이 극중에서 실종되거나 죽었지만, 언제 사라졌는지 왜 사라졌는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자신의 주변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인지 아닌지도 헷갈려한다.

태양이 특별히 밝게 빛나는 날 查辦하는 사람이 老孫頭를 잡아가 버렸다 …… 예전에 老孫頭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근데 왜 없어진 거지? 아무도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 꿈은 한도 없고 끝도 없었다.

(那天太陽特別亮。鐵門響着，查辦的人出其不意的來了。給抓去的竟是老孫頭！…… 先前有過老孫頭，后來沒啦。 老孫頭是怎么沒的呀？沒人記得起。 那些夢總是沒完沒了。) [42]

“죽일 놈의 王四麻, 결국 행방불명됐어!” “근데 王四麻라는 사람은 실존하는 인물이야?” …… 모두들 뭔가를 이해한 것 같았지만 이해하지 못한 것 같기도 했다. 그들은 王四麻가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고도 생각했다.

(“該死的王四麻，竟失踪了！”“王四麻是不是一个眞人？” …… 大家好像明白了什么，又好像也不明白。他們覺得王四麻應該是一个眞人，又覺得王四麻也許果然不是一个眞人。) [43]

몽환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黃泥街≫는 ‘잠’에 듦으로서 ‘꿈’을 꾸는 방식으

40)≪黃泥街≫, 44 쪽.
41)위의 책, 147 쪽.
42)위의 책, 18 쪽 ~ 20 쪽.
43)위의 책, 24 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로 무의식을 표현하였고 이성이 마비가 되어버린 등장인물들은 몽유병에 걸린 듯 의식 없이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꿈에서 허덕인다.

무의식의 다른 특징은 대화의 단절이다. 그들은 잠꼬대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나간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만 할뿐 소통하지 않는다.

"요즘 저는 죽은 고양이가 자꾸 달라붙어요. 江水英의 발가락에 닭발이 자라났데요. 본적이 있나요?"

"그 함정 안에는 해골 한 구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당연하죠. 그 닭발에는 발톱도 있대요. 아주 더러운... 보러 갈래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눈알도 있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近來我總被那只死猫纏住。江水英大脚趾上長出了鷄爪，你去看過嗎？"，"那陷阱里放着一架骷髏，你不要告訴人。"，"当然。那鷄爪上還有指甲，臟透了，你不去看？"，"另外還有一對小孩的眼珠，你不要告訴人。")[44]

"연못 속에 또 뭔가 떠올랐어?" 宋婆는 쥐처럼 잽싸게 지나갔다.

"어떤 사람이 老孫頭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음모를 꾸미는 거야!" 楊三癩子는 뭔가 기억이 난 듯 놀라 펄쩍 뛰어올랐다.

"동지들!" 齊婆가 흙 묻은 침을 뱉어내고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당신들은 천백만 명의 머리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아? 밤에 창문 잘 닫으세요! 간첩을 조심하세요!"

("塘里又漂上了？"宋婆如鼠子一溜而過

"有人要牟老孫頭的位！"楊三癩子記起了什么，惊跳起來。

"同志們！"齊婆將帶泥的口水吐出來，邊跑邊喊，"你們對千百万人頭的問題是如何估計的？啊？哈！請在夜里關好窗！当心奸細！")[45]

이렇듯 黃泥街의 사람들은 실제와 허구의 세상을 구분하지 못하며, 殘雪은 한 가지의 사고에만 집중하는 등장인물들의 의식을 표현하여 꿈속과 같이 몽환적인 세계를 창조해내었다. 꿈과 같은 세상에서 등장인물들은 더러운 거리와 모든 것들이 미쳐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에 절망한다. 그들

44)위의 책, 75 쪽.
45)위의 책, 19 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은 죽어서도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고통 받는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게 언젠가는 실현될 거라고 믿는 안락한 삶에 대한 희망의 마음도 표현했다. 지옥과도 같은 꿈을 매개로한 ≪黃泥街≫는 등장인물들을 밑바닥 까지 떨어뜨려놓고 무의식의 세계에서 고통 받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해내었다.

2) 혐오 표현

殘雪의 小說 대부분은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변태적이고 혐오스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스토리의 환경은 예외 없이 공포감을 조성하고 구토를 일으킨다.”[46] ≪黃泥街≫의 小說 속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지저분하다. 하늘에서 끝도 없이 매연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투명하지 않고 검다. 건물 안에서는 오줌지린내가 진동을 하며, 어느 것 하나 새것 없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거나 천천히 삭아가고 있었다. 殘雪은 온갖 추잡한 것들이 가득한 지옥과도 같은 장소를 상상할 수 있게 묘사한다.

> 黃泥街는 지저분하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계속해서 새카만 먼지가루가 떨어져 내리기 때문이다.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르는 먼지들은 일 년 사계절 아마도 시시각각 계속해서 떨어져 내렸다. 비가 내려도 전부 검은색이다. 그 작은 건물들은 마치 흙속에서 자라난 것처럼 전체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창문조차 흐릿하게 보였다. …… 먼지 때문에 黃泥街 사람들의 눈은 붉게 충혈 되었고 대부분은 일 년 내내 기침을 달고 살았다.
>
> (黃泥街上臟兮兮的，因爲天上老是落下墨黑的灰屑來。也不知是從哪里來的灰，一年四季，好像時時刻刻總在落，連雨落下來都是黑的。那些矮屋就像從土里長出來的一樣，從上到下蒙着泥灰，窗子也看不大分明。…… 因爲落灰，黃泥街人大半是爛紅眼，大半一年四季總咳嗽。)[47]

또한 ≪黃泥街≫는 역겹다. 그중 대소변에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다. “屙”, “屎”, “糞” 등 배설물에 관련된 단어 사용이 잦아서 악취가 뿜어져 나오는 착각을 준다.[48]

---

46)≪중국당대문학사≫, 368 쪽.
47)≪黃泥街≫, 2 쪽.
48)"屙", "屎", "糞" 등 배설물에 관련된 단어는 총 99 번 등장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등장인물들은 화장실을 자주 가고 그곳에 쭈그려 앉아서 대화하기를 좋아했다. 그들은 땀으로 온몸이 젖어도 싸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 화장실은 그로인해 늘 만원이었으며, 버티다가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바짓가랑이에 싸기도 했다. 화장실은 모기와 배설물이 가득했고, 심지어 그곳에 들어가 볼일을 본 區長은 바로 눈병을 얻었을 정도로 위생상태가 심각했다. 또한 그들은 거리에 뱀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창문도 없는 다락방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화장실 가는 것 초자 겁이 난 사람들은 다락방 바닥에 구멍 하나를 뚫어 그곳에 싸기 시작했다. 당연히 다락방안에서 싼 대소변들은 집안에 떨어져 쌓이게 되며 온 집안에 악취를 풍겼다. 그곳에서 王子光이라는 인물은 실수로 미끄러져서 바지 전체에 대변을 묻히게 된다. 더러운 환경뿐만 아니라 거리의 사람들의 기이한 식성에서 오는 역겨움도 상당하다. 그들은 썩어버린 과일은 예사이고 땅바닥에 있는 흙과 철, 그리고 박쥐나 파리, 거미 등을 먹었으며 거리에 아무렇게나 죽어버린 동물들의 사체도 거리낌 없이 먹었다.

> 齊婆는 공장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음모가! 간첩! 천백만 명의 머리는 땅에 떨어질 거야!” 소리를 지르고 난 뒤에는 쭈그려서 진흙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갉아먹으며 그것들을 삼켰다. 땅은 금세 갉아 먹혀서 움푹 파였다. 그녀는 흉악한 사람이다. 철도 삼킬 수 있을 것만 같았다.
>
> (齊婆在广内風跑着，高喊：“陰謀者！奸細！千百万人頭要落地啦！”喊過之后，跪下去啃泥巴，邊啃邊咽，眼見地上肯出了一个洼。她是凶惡人，鐵也咽得下。)[49]

> 그날 아침, 宋婆는 파리를 잡아넣은 바구니에서 꺼낸 파리를 한 마리씩 껍질을 벗기고 머리와 날개를 떼어 주방에서 볶아먹을 준비를 했다.
>
> (那天早上，宋婆將捕蠅籠子里蠅子一只只剝好，去掉頭和翅子，准備到廚房去炒來吃。)[50]

이렇게 쉴 새 없이 표현된 더러움의 묘사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혐오표현이 가장 심하게 표현된 곳은 거리에 홍수가 난 직후 부분이다. 무릎까지 내린 비에 화장실에 있는 대변들이 모두 물속에 둥둥 떠다녀 악취를 풍겼고, 물은 알 수 없는 기름처럼 검은색의 광택을 내뿜었다. 한 사람은 그 기름

49)위의 책, 19 쪽.
50)위의 책, 63 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득한 물속에서 무엇인가를 건져먹었고 거리사람들은 그를 따라 그 더러운 물곳에서 물건들을 찾아 꺼내어 자신의 뱃속을 채웠다.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구토를 유발시킨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더러운 환경에서 괴로워하며 미쳐간다. ≪黃泥街≫의 인물들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추접하고 더러운 행동들을 멈추지 않으며, 지옥 같은 상황 속에 이미 잠식되어있었다. 언젠가는 깨끗한 환경,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바라지만 그것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등장인물들의 절망은 더 커져만 갔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더러운 삶에서 등장인물들은 회피하듯 잠을 자는 것에 집착하였지만,꿈속에서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또 다른 지독한 악몽을 꾸었다. 그렇기 때문에 ≪黃泥街≫는 악몽이라고 불린다.[51]

다른 先鋒 作家들의 作品 들은 폭력, 살해, 성적인 묘사로 잔인함과 혐오스러움을 묘사하였다면 ≪黃泥街≫ 은 더러움에서 오는 혐오스러움과 악몽 같은 상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살아가야만 하는 비참한 인물들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더러움을 이용한 혐오의 표현은 ≪黃泥街≫ 에 곳곳에 가장 잘 드러나 있는 표현이고 이것은 다른 作品들과 차별된 혐오의 표현을 보여준다.

2. 은유적 표현

殘雪은 동시대의 靑年作家들과 같이 文化大革命이라는 특수하고도 거대한 흐름을 몸소 겪었다. 개혁개방정책이 시행된 후인 1980년대에는 文化大革命에 반동으로 文化大革命을 비판하는 내용의 傷痕文學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傷痕文學은 文化大革命의 기간 동안 중국사회의 모순 및 파괴 그리고 무서웠던 당시의 상황을 고발하며 文化大革命시기의 상처를 되짚어 보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靑年作家였던 殘雪은 자연스럽게 중국문단의 유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것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小說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殘雪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小說에는 정치가 없다고 발언하였다. 하지만 그

51)≪중국당대文學사≫.368 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녀의 作品초기(1985－1986)의 小說들을 살펴보면 그녀가 겪은 文化大革命의 잔재가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러 비평가들 또한 그녀의 小說 안에서 '文化大革命'의 흔적이 발견된다고 하였다.[52)]

文化大革命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하나의 사건이다. 어린 시절 그녀가 겪었던 경험은 그녀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사건들 중 하나이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 내가 이런 부류의 小說을 쓰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 세상에 대한 특별한 계획 때문이다. 나는 감정면에서의 복수를 늘 생각하며 잊지 않았다. 특히 막 창작을 시작할 때, 복수에 대한 생각이 매우 강했다……
>
> (綜上，我們可以看出，都描繪一个荒誕的夢幻世界，殘雪用變形的手法，用夢囈般的語言來表現對曾經的"文革"世界的恐惧，余華却用寫實的手法，講述各种刑罰的現場，用充滿血腥的文字表達對"文革"時期的非人社會的不滿.)[53)]

文化大革命은 희생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모호했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생각한 복수의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80년대의 많은 문학 作品을 보았을 때 창작의 재료들은 모두 文化大革命 중에 겪은 개인적 경험이었다. 그러므로 복수의 대상은 무심하고 냉담한 반응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주변사람들과 힘들었던 시기를 만들어낸 지도자이다.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반동분자 집안으로 몰린 후 주변사람들의 냉담함으로 자신의 외조모가 사망했으며, 정치적 상황은 자신의 학업이 중단이 되게 만들었다.

≪黃泥街≫에는 독자들로 하여금 文化大革命의 잔재라고 하는 여러 가지 흔적들과 殘雪 본인이 당시상황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다. 小說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징적인 동식물과 곤충들이 등장하며, 어떤 것들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만, 너무 깊은 은유로 추측만 간신히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

---

52)杨群,<残雪与余华文革叙事比较——以《黄泥街》和《一九八六》为例>.西南大学文学院, 2011.
53)施叔青, ≪为了报写小说 -与残雪谈写作≫, 440 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태양

숨겨진 의미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지도자에 대한 비판, 즉 毛澤東과 공산당을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文化大革命을 이끌었던 지도자 毛澤東의 숨 막히는 간섭은 제한적인 글짓기를 불러왔다. 그 제한적 글짓기에서 가능했던 것은 농민을 위한 영웅적 글이나 지도자를 찬양하는 찬양글이 대부분이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毛澤東 찬양가 <東方紅>에서는 毛澤東을 동쪽에서 뜨는 태양, 연안의 붉은 별 등으로 묘사하며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칭송한다.[54] 이렇듯 중국에서 태양은 기본적으로 毛澤東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작중에서는 태양에 대한 묘사가 매우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녀의 小說 안에서의 모든 등장인물은 태양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다.

> 진흙길의 사람들은 태양이 뜨고 지는 장엄한 모습을 한 번도 본적이 없었다. 그들의 희미하고 작은 눈에서 태양은 항상 작고 누런 하나의 공이었다. 매일 뜨고 다시 지는 것 말고는 다른 점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오늘 태양이 있어', '오늘은 태양이 없네.', '오늘은 태양이 아주 좋네.', '오늘은 별로 좋지 않네.'라고 할 뿐이었다.
>
> (黃泥街人從末看過日出的庄嚴壯觀，也末看到過日落的雄偉气勢，在他們昏暗的小眼睛里，太陽總是小小的，黃黃的一个球，上來了又下去了，從來也沒什么异樣。他們只說："今日太有陽。""今日沒太陽。""今日太陽好得很。""今日太陽不怎么好。)[55]

> 태양은 어찌 저리 밝고 하얄까? 저 밝음은, 저 하얀색은 분명히 거짓일 것이다. 분명히 어떠한 음모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
> (太陽怎么那樣亮，那樣白？那亮，那白光明明是虛假的，明明隱藏着什么陰謀)[56]

등장인물들은 그저 태양이 그곳에 떠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뿐이지, 태양이 만들어내는 새벽에 뜨는 태양의 아름다움과 석양의 웅장한 모습들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마치 당시 지도자였던 毛澤東의 너무 극단적인 정치 정책은

54)东方红(陕北民歌），https://baike.baidu.com/item/%E4%B8%9C%E6%96%B9%E7%BA%A2/3409383?fr=aladdin."东方红，太阳升，中国出了个毛泽东 …… 共产党像太阳，照到那里那里亮"
55)≪黃泥街≫,3 쪽.
56)위의 책, 15 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그로인해 자라난 불신으로 냉담해져버린 사람들과 닮아있다. 생명과 구원의 상징인 태양과 태양빛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파리와 구더기를 만드는 주범으로 변모했으며, 모든 것을 썩게 만드는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렸다.

태양이 뜨자, 물건들은 모두 썩고 모든 곳이 다 흐물흐물 해지고 있다.

(一出太陽，東西就發爛，到處都在爛。)[57]

태양은 갈수록 사람을 말려버리고 파리는 갈수록 많아진다. 파리는 태양을 좋아한다. … … 하지만 태양은 약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파리도 적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太陽越烤人，蠅子就越多，蠅子喜歡太陽。 …… 但太陽總不見弱，蠅子總不見少)[58]

그래서 등장인물들은 모두 태양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대약진과 같은 정책의 실패는 대기근을 만들었고, 홍위병을 인정한 행위는 파리와 같이 더러운 존재들을 만들어 낸 것처럼 지도자에 무능함을 강조하는 요소가 태양이라고 추측된다. 이렇듯 태양의 부정적인 면은 作品 곳곳에 드러나 있다. 또한 태양은 거리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잠을 선사한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태양이 떴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철문안의 4,5백 명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곯아떨어졌다 … … 통쾌하다! 태양은 진짜 좋네! 태양은 모기도 파리도 잠들게 만든다.

(在人們的記憶里面，好久以來，就一直出太陽。由于某种原因，好久以來，鐵門內的四五百人就一直昏睡着 …… 痛快！太陽這么好，太陽底下連蚊子也做夢的，連蠅子也做夢的 ……)[59]

태양이 지도자이고 그가 자꾸 잠을 자게 만든다는 것은 세뇌의 의미이다. 이미 세뇌에 당해버린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지도자의 정책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괴로워하며 지도자를 원망한다.

57)위의 책, 12 쪽.
58)위의 책, 26 쪽.
59)위의 책, 13 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태양은 잠에서 깨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의지를 무너뜨리며 다시 회생할 수 없게 한다. 마지막에 話者는 黃泥街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듣게 된다. 그러자 눈을 바싹 말려버릴 듯 강하게 내리쬐던 태양은 어느새 석양으로 바뀌어있었다. 話者는 멀리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세상은 참으로 따듯하다는 것을 느낀다. 또한 ≪黃泥街≫ 마지막 부분에서는 殘雪이 小說에서 평화적인 상징으로 사용하는 파란 꽃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한 연구자는 “어린 파란 꽃은 우리가 흔히 감지할 수 있는 작고 아름다우며 희망에 대한 어떤 동경을 간직하고 있는 이미지이다. 어리고 나약하다는 다른 부가적 뉘앙스가 가미되어 있기도 하다.”[60]라고 파란 꽃을 정의하였다. 이것은 부정적인 모습의 태양과 상반된 석양을 등장시킨 것과 같이 힘들었던 암흑기는 이미 지나갔고 새로운 시대가 왔으며 저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희망을 보며 안도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 造反派와 공장

또 다른 하나는 공장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공장은 1967년 이후에 노동자계급에게까지 확산된 文化大革命의 또 다른 중요한 장소였다. “홍위병 내의 조직 중에서 造反派라는 조직은 공장의 내외부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으며 특히 상해공장은 노동자 造反派가 접수하여 혁명적 간부, 노동자, 군대표로 이루어진 혁명위원회를 구성했다.”[61]

≪黃泥街≫에서도 공장이 등장한다. 이름은 S기계공장으로 거리 끝에 위치해 있다. 사람들은 이 공장을 거리 유일의 자랑거리로 여기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거리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S기계공장이 언제, 왜 생겨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또한 공장에서 ‘스틸볼’이라는 철 가공품을 생산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러한 물건을 왜 만드는지 역시 알지 못했으며 그런 이들에게 다가가 자세하게 이것저것 캐물으면 횡설수설하며 造反派와 합리적 경영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60)<찬쉐(殘雪) 小說론>, 173 쪽.
61)백승욱, ≪문화대혁명 중국현대사의 트라우마≫, 살림출판사, 2007, 72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너는 왜 나에게 물어? 너는 造反派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你干嗎問我？你對造反派的前途如何看？)[62]

만약에 계속해서 물으면 사람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당신의 좌우를 살피며 물을 것이다. '당신 혹시 위에서 왔어요?' 만약 아직도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 이야기한다. '당신은 합리화경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老革命근거지의 전통은 발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如果硬要追問，就會有人警惕地盯緊你左看右看，問："你是不是上頭派來的？"如果還不走開，他們會繼續說："你對合理化管理怎樣看？老革命根据地的傳統還要不要發揚？")[63]

공장에서의 文化大革命의 쟁점이 관리방식과 교육혁명이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합리화경영이라는 단어는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공장에서의 관리방식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주도권을 잡고 공장을 관리하는 것이며,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행하고, 결과적으로 공장이라는 공간은 하나의 文化大革命의 실험실이자 기술개량의 장소가 된 것이었다. 공장에서의 교육혁명의 의미는 노동자들의 해당지적능력을 향상시켜 생산에의 보탬이 되자는 취지해서 행해졌으며 공장 내에서 대학교까지 만들어졌다."[64] 小說 내에서는 교육혁명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고 "교양수업"라는 수업을 만들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듣게 해줘야겠다는 공장장의 말이 나온다.

또한 王子光 형상은 造反派와 닮아있다.

거리 사람들은 굉장한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王子光에게 구원받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가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造反派는 毛澤東을 열렬히 지지를 하였고 毛澤東은 그들의 지지를 수용하여 그들에게 권력을 주었다. 造反派는 그들의 반대세력 혹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사람들이 王子光을 피한 이유는 造反派와 같이 폭력적인 처벌을 즐기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거리사람들은 모두 거리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의 해결을 바라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한다. 자신들의 선과 악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자신도 처벌

62)≪黃泥街≫, 5 쪽.
63)≪黃泥街≫, 6 쪽.
64)≪文化大革命 중국현대사의 트라우마≫, 73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 했다.

“文化大革命 당시 중국의 공산당은 신민주주의를 외쳤으며, 그리고 각 집단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노라고 약속했다. 노동자에게는 높은 삶의 질을 약속했는데 그로인해 造反派 조직에 가입하는 인원이 늘어났다.” 65) 作品 속에서는 王子光의 존재가 드러나자 고상한 척 하며 담벼락에 “어둠은 이미 물러갔다, 광명이 올 것이다!”, “사내대장부는 천하에 뜻을 둔다.”, “물을 끓여먹는 문명적인 습관을 기르자.” 와 같은 여러 개의 표어들을 붙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노력하는 등장인물들을 묘사하였다. 하지만 造反派는 毛澤東에 의해 결국 와해되었고 존재자체 만으로도 희망의 존재였던 ‘王子光’은 죽어버렸다. 그의 소실로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 일을 손에서 놓게 된다. 등장인물들은 굉장한 슬픔에 잠겨 밖을 나오지 않았으며, 태양빛 아래서 또다시 세뇌와도 같은 잠에 빠져들었으며, 造反派의 근거지중 하나의 의미로 해석하는 S기계공장은 결국 가동이 중지되었다. 이것은 거리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造反派의 일원 이였음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며, 王子光이라는 造反派의 이상의 죽음을 현실화 시켜서 그들의 좌절한 이상을 作品 속에 드러내었다.

3) 區長

王子光이 사라지자 區長이라는 존재가 거리 안으로 들어온다.

區長의 등장은 새로운 구원자를 의미한다.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영웅적 존재가 아니라, 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임과 동시에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실존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들은 區長에게 병적일 정도의 집착을 보인다. 그들은 區長의 잠자는 모습만으로도 굉장히 흥분하며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區長의 코고는 소리를 듣는다. 또 區長이 대변을 볼 때에도 악취가 나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신선한 대변의 냄새가 풍겨져 나온다며 좋아한다. 그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區長에게 복종하였다.

이러한 맹목적인 모습은 文化大革命 시절의 숭배와 신앙의 대상인 毛澤東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다. 毛澤東 개인을 숭배하던 시절에는

65)프랑크 디쾨터, 고기탁 译, ≪문화대혁명≫, 열린책들, 2008, 207 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포스터나 배지 같은 毛澤東 관련 상품이 인기가 많았다. 사람들은 아끼던 배지하나를 잃어버리면 펑펑 흐느껴 울 정도였다. 그리고 상점들은 하나같이 毛澤東의 초상화를 걸고 붉은 깃발로 장식을 했다. 사람들은 그가 말한 어록으로 만들어진 책을 경쟁적으로 구입했다. 병원의 환자들은 毛澤東 사진 앞에서 아침마다 충성을 서약했다. 일반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라고 찬양하며 그를 칭송했으며 정치인들은 그를 찬양하는 글을 써내어 눈에 들고자 하였다.

黃泥街의 사람들 역시 區長과 친해지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이미 친해진 사람들은 친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였다. 朱幹事는 區長이 맨 처음 찾아간 인물이며 區長이 제일 신뢰하는 인물이다. 朱幹事는 區長이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거리를 떠난 척 하며 자신의 집으로 가는 區長의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낀다. 며칠 뒤에는 사람들에게 區長이 자신에 집에 묵고 있다고 소문을 낸다. 사람들은 벌떼 같이 朱幹事의 집에 몰려들었고, 朱幹事는 거리 사람들에게 區長은 감기가 걸려 자고 있으니 시끄럽게 하지 말고 한명씩 들어와 보라며 잠을 자고 있는 區長을 '구경'시켜주었다. 區長은 그날 거리 사람들 모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자 거리사람들은 "朱幹事는 좋은 사람이야. 區長이랑 비슷하게 좋은 것 같아"[66] 라고 말하며 朱幹事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이러한 거리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홍위병 사열식에서 홍위병들이 주석의 얼굴을 보기위해 까치발로 두리번거리는 모습과 비록 조그맣게나마 보이는 주석의 모습을 보자 세상을 다가진 듯 만족하는 모습과 매우 닮아있다. [67]

朱幹事뿐만 아니라 齊婆도 區長에 대해서 질투에 가까운 집착을 보여준다. 區長은 어느 날 袁四老婆의 집에 찾아가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다. 袁四老婆는 이러한 일을 齊婆에게 자랑 하듯이 말한다.

> 區長이 우리 집에 왔어. 이봐, 지금 잘 듣고 있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아주 어둡잖아 등을 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그가 더듬더듬하면서 들어오는데 아마도 사람을 잘못 찾아온 것 같았어. 나는 뜻밖에 너무 기뻐서 그를 붙잡아 버렸어! …… 그때 나는 한손으로 그를 붙잡고 한손으

66)≪黃泥街≫, 47쪽.

67)≪문화대혁명≫, 191 쪽. "베이징에서 홍위병 사열이 끝날 때마다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에서도 똑같은 말이 끊임없이 흘러 나왔기 때문이다. '오늘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마침내 나는 위대한 지도자 마오주석을 만났다!.'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로는 서랍장에 있는 삼밧줄을 꺼내서 그의 몸을 나의 몸에 붙여서 묶어버렸어. 그런데 그가 뜻밖에도 저항을 하지 않았어. …… 그는 지금도 내 침대에서 자고 있어. 나랑 같이 가서 몰래가서 구경해봐 그런데 오랫동안 볼 수는 없어. 그는 지금도 코를 골고 있어! 정말 사랑스러워 죽겠어!

(區長到我屋里來啦。喂，你听清沒有？你知道我屋里很黑，不開灯什么也看不見，他摸索進來，很可能是搞錯人啦。我眞是意外的高興，我一把揪住了他 …… 当時我一只手抓緊他，另一只手打開抽屜，找出一根麻繩，把他緊緊地綁在我身上了。…… 他果然就乖乖地貼在我身上，一動也不動了。現在他還在睡在我床上，你可以跟我去偷看一下，不過不能看很久。他還打鼾呢，眞愛死人喲！)[68]

齊婆는 그런 袁四老婆를 사람들 앞에서 험담하며 區長이 자신의 집도 방문 한 적이 있었고 袁四老婆처럼 말하고 다니지는 않았으나, 자신도 區長과 모종의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그날 밤 區長을 찾아가는 집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袁四老婆와 區長의 하룻밤에 대한 묘사는 小說 안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袁四老婆가 區長에 대한 집착으로 망상을 만들어 내어 꿈속에서 행했을지도 모르는 일처럼 근거가 없다. 만약 袁四老婆 실제로 납치와도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 비난 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하룻밤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가 거리사람들에게 전해지자 거리의 남자들은 袁四老婆에게 반한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이며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으며 거리여자들은 기회를 잡은 袁四老婆를 칭찬한다. 그들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았고 무조건 區長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맹목적인 믿음은 우상숭배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區長에 대한 사람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광기에 가까운 집착들은 毛澤東 숭배 시절의 사람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4) 정치 어휘 사용

≪黃泥街≫는 또한 “路線, 形勢好, 是非問題, 匯報, 備案등의 지나간 정치, 특히 文化大革命에서 많이 사용했던 어휘들이 등장한다.”[69] 이러한 어휘들은 殘雪의

68)≪黃泥街≫, 101 쪽~102 쪽.
69) 代苗雪,<论新世纪残雪小说创作的变化>,安徽师范大学,2015, 35 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小說에서 일상회화처럼 사용되었고 여기에서 文化大革命이 그녀에게 끼친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殘雪이 자각했었던 자각하지 않았던 간에 무의식 속에서 흘러나와 특수했던 시대의 혐오와 고발이 들어있다.

路線問題是个大是非問題
노선의 문제는 큰 시시비비의 문제이다. (33 쪽)

노선은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 중에 하나이다. 노선은 공산당이 계급주의 무산과 생산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사상 등의 견해와 행동방침을 말하는 것이었다. 단순한 생산력 발전과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발전, 혁명을 다른 영역으로 확대시키자는 2가지의 노선은 많은 대립을 불러일으켰으며 毛澤東의 지지로 후자가 선택되어 총노선, 대약진, 인민공사라는 “三面紅旗”의 노선을 탄생시켰다. 노선으로 시작하여 노선으로 끝나는 공산당의 개혁에서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절대로 가볍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어가 ≪黃泥街≫에서 쓰였다는 것은 殘雪이 文化大革命에 대한 영향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어휘이다.

天子要顯灵了，有怪事出的，首先應該肯定，形勢一片大好……. 上面有个精神叫‘好得很’，是關于愛國主義精神的。什么叫‘好得很’？目前形勢好得很！上級指示好得很！ 我的意思是睡覺時不要把兩只眼全閉上了，要張一只閉一只，要出怪事了。 (13 쪽)

하늘이 영험함을 나타내었고 이상한 일이 생길 것이다. 일단은 형편이 아주 좋다고 긍정해야한다. 위의 정신은 ‘아주 좋다’ 이며 그것은 애국정신과 관련이 있다. 무엇을 ‘아주 좋다’라고 하냐고? 현재의 형편은 아주 좋다! 상부의 지시는 아주 좋다! 라고 여기는 거지. 내 말의 뜻은 잠을 잘 때 두 눈을 감지 말고 한쪽 눈만 감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小說 안에서 발생할 이상한 일의 정체는 정풍운동으로 추측된다. 정풍운동은 1942년 毛澤東이 한 발언을 정치화 시킨 것이며 文學과 예술은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병사에게 봉사하는 의미로 창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초반에는 좋은 의미로 시작하였지만 애국주의와 사회주의로 협소화되어 창작주제 제한의 단점을 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러왔다. 이러한 창작제한의 행위는 小說 안에서 말하는 이상한 일의 발생을 예언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하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상부의 지시는 틀리지 않으니 긍정적인 태도가 되라고 말했다.

'請認識問題的嚴重性' 他頭也不抬, 自言自語着, '一切權利傳統下放！'(107 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십시오."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중얼거렸다. "모든 권력관습을 내려 보냅시다!"

권력세습타파와 권력하방은 공산당의 가장 큰 숙제였다. 毛澤東은 스탈린의 '제1차 5개년 계획'과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5단계론'을 중심으로 착취당하는 계급의 세습을 없애고자 하였으며 착취계급인 부르주아계급의 권리를 약화시켜 무계급의 중공업 국가를 만들고자 하였다.

齊婆用兩手做成一个喇叭高喊：'警惕奸細！警惕奸細！'(123 쪽)

齊婆는 양손을 나팔처럼 만들어 소리쳤다 "간첩을 경계하자! 간첩을 경계하자!"

대오 정화 운동은 文化大革命이 시작되기 전에 실행되었으며, 文化大革命의 대업은 당내의 고위 간부들 틈에 숨은 반역자와 간첩을 몰아내는 것[70]이라고 칭하며 당 안에 잠입한 스파이와 숨은 반역자를 가려내기 위한 운동이었다. 小說 안에 등장한 孫老頭는 당의 지시에 복종해야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해 준 인물이다. 그는 상부의 뜻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할 만큼 위의 지시에 복종하는 인물이었지만, 결국 잡혀가고 말았다. 이러한 억울한 희생은 대오 정화운동과 닮아있다. 대오 정화 운동 역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며 희생자는 대부분은 간첩과는 관련 없는 일반인들이었다.

"造反派掌權了么？" 他嘀嘀咕咕地, 磨了磨松動的板牙。黑暗中有兩只通紅的暴眼盯緊了他…… 胡三老頭還在想, 造反派的希望大不大？(쪽 50)

"造反派는 권력을 장악하였나?" 그는 웅얼웅얼 거리면서 닳아버린 앞니를 갈았다. 어둠속에서 새

70)≪문화대혁명≫, 296 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빨갛게 부어오른 두 눈이 그를 노려보았다. … … 胡三老頭는 아직도 “造反派의 희망은 큰가?” 하고 생각했다.

造反派는 文化大革命에서 탈권 투쟁을 전개하였고 매우 폭력적이며 잔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조직원들은 낮은 문화계급의 사람들이었으며 保皇派(보수파)와 같은 홍위병이지만 태생과 사상적인 이유로 분리 되었으며 서로 대립하였다. 小說 안에서 造反派의 대한 언급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지만 등장인물들은 造反派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만 할 뿐[71] 그것에 대한 답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71)≪黃泥街≫안에서 造反派에 대해 언급한 횟수는 6회이다. “你对造反派的前途如何看？”,5쪽.
”有人说造反派的势力不可抵挡，你们如何看？”,34쪽. ”造反派掌权了么？”,”造反派的希望大不大？,50쪽.
”.造反派什么时候翻身？”,129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V. 주제 분석

≪黃泥街≫의 주제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중국 사회에 대한 고발과 作家의 무의식의 표출이다. 전자는 小說에 전반적으로 묘사된 부정적인 면을 분석한 것으로 겉으로 드러난 주제이다. 두 번째는 내면에 있는 주제로 作家 殘雪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무의식의 세계는 무엇인지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 해 내고 있는지에 대한 考察이다.

1. 중국사회 고발

"중국내의 평론가들은 그녀가 作品을 통해 중국의 사회문화를 남김없이 폭로하였다고 평가하였다."[72] 또한 한 연구자는 "殘雪은 자신의 作品은 중국사회의 본질을 완벽하게 묘사하였기 때문에 세계성을 가질 수 있었고, 많은 作家들이 중국의 현실을 作品에 반영하였지만 그녀의 성취를 따라오지는 못했다."고 하였다.[73] 殘雪은 자신이 겪었던 중국사회의 모순과 病弊와 같은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을 ≪黃泥街≫안에서 고발하였다. 小說 속에는 文化大革命 시기의 사람들이 감시당하고 고발당했던 상황에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 물어뜯는 행동, 불신이 싹터 가족 사이에도 무심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 그리고 문명적이지 못한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잘 나와 있다.

1) 감시와 밀고

文化大革命 당시의 사람들은 본인이 얼마나 무고하던 간에, 언제 어디서나 스파이나 반동분자가 되어 버릴 수 있었다. 그것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되어 버릴 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조심하며 살아갔다. 그들은 안전을 위하여 사람들을 감시한다. 그리고 자신

72)<殘雪의 모더니즘 소설연구>,10쪽.
73)<찬쉐(殘雪) 소설론>,170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안위를 위하여 밀고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黃泥街≫에서도 사람들의 감시는 매우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小說 곳곳에 감시하는 인물들로 넘쳐난다.

「胡三老頭는 바지단을 매며 말했다. "빛나는 공하나가 매일 창살밖에 멈춰서는 더워서 못 견디게 하네, 관자놀이도 튀어나올 것같애. 여기 사니 참 좋네, 천장 틈에서는 버섯이 자라고 파리는 비처럼 천막 위로 떨어져 내리고." 그는 침대에 누워 먼지로 뒤집어쓴 모기장을 사람들 앞에서 치며 그 안에서 키킥댔다. "이일은 상부에 알려야겠어요." 宋婆의 목소리가 창문 밖에서 울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곳에 숨어서 몰래 듣고 있었던 것이었다.

胡三老頭邊系袴子邊說："有一只光球老停在窗櫺上，弄的我熱的不得了，太陽穴突突地跳。我們住在這里好得很，這天花板縫里長蘑菇，蠅子像雨一樣落在帳頂上。"他上了床，將蒙灰的帳子當着衆人放下來，躲在里面哧哧地冷笑。"這事要告訴上面。"宋婆的聲音在窗外響起。原來她一直躲在那里偸听。」[74]

이러한 병적인 감시는 밀고라는 연쇄적 반응을 일으킨다. 대다수의 인물들은 습관처럼 남을 감시하는 일에 몰두해 있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닥치면 주저없이 이웃들의 잘못을 상부에 밀고한다. 胡三老頭은 王子光을 만났고 두려움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두서없이 횡설수설하다가 무의식적으로 밀고를 하게 된다.

王子光은 이상하게 웃으며 胡三老頭의 등을 두드렸다. 胡三老頭의 등에서는 수많은 벌들이 마구 돌아다는 것처럼 위잉 위잉 소리가 났다. 그는 거북이처럼 작고 빛나는 눈을 고정시키고는 열렬히 말했다. "초가집 지붕에는 황새냉이풀이 정말 무성해요. 이웃집 송가는 파리를 먹어요. 그녀를 조사해 보세요. 빨리 가서 …… 어떤 사람은 造反派는 저지할 수 없을 거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王子光怪樣地笑着，拍了拍胡三老頭的脊梁，胡三老頭的背被拍出嗡嗡的叫聲，有許多蜂子在里面亂撞。他像老烏龜一樣凝滯着細小發光的眼珠，熱切地說："茅屋頂上的酢醬草長得眞茂盛。隔壁宋家里又吃蠅子，你們去查她，快去……有人說造反派的勢力不可抵擋，你們如何看？")[75]

74)≪黃泥街≫, 77 쪽.
75) 위의 책, 84 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웃을 고발하면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감시라는 행동을 멈추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다치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관'이라는 것들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감시를 막아보려고 노력했고 민감한 안건에 대해 대화를 할 때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黃泥街 사람들은 모두 방범용이라면서 "기관"을 설치하곤 했다. 그런데 모두들 그 "기관"이 항상 자신들을 해쳤다. 예를 들면 齊婆는 문틀에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항상 걸어놓았다. 문을 열자 그 뜨거운 물이 그녀에게 쏟아졌고 아직까지도 그녀의 다리에는 큰 상처가 남아있다.

(黃泥街人都喜愛安"机關", 說是防賊。每每地, 那"机關"總傷着了自己。例如齊婆, 就總在門框上吊一大壺滾燙的開水。一開門, 開水冲她倒下來, 至今她脚上還留下一个大疤。)[76]

"王四麻는 실존하는 인물인가?" "쉿! 그렇게 큰소리 내지 마세요.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으니까. 잘 들어요."…… "王四麻는 진짜 사람이 아니……" "쉿! 그렇게 큰소리 내지 마세요. 며칠 내로 뭔가 일이 날 거 같아요. 저 태양이 갈수록 녹아 내릴 거 같지 않아요? 어젯밤에는 웬 미친 개가 밤새 짖더대고."

("王四麻是不是一个眞人？" "噓！不要這樣大聲, 我的心跳得眞厲害。我來告訴你。" …… "四麻是不是一个眞……" "噓！不要這樣大聲。這几天可能要出什么事。你看, 這太陽不是越燒越化掉了么？昨夜有只瘋狗在誰的院子里吵了一夜。")[77]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행동은 전형적인 감시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이다. 그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심한다.

또한, 그들에게 밀고는 자신을 지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신의 밀고가 좋지 않은 상황을 불러온다고 생각하면 바로 함구하고 어물거리며 넘어가려한다.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죄가 있으며 그 죄는 유언비어라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드러난다. 이러한 유언비어로 인해 거리의 인심이 흉흉해지자, 이를 해결하러 온 區長은 몰래 변장하여 탐문수색을 하기 시작하지만 사람들은 區長의 존재를 바로 파악하고 대답을 회피하며 자리를 피한다.

---

76)위의 책, 4 쪽.
77)위의 책, 85 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區長은 어느 날 黃泥街에서 평민 복장을 하고 시찰을 했다. ……“黃泥街에 박해사건이 있었습니까?” 區長은 노인의 귀에 대고 말했다. “네?” 노인은 얼굴색이 변하며 뒤로 두 걸음 물러섰다. 그를 자세히 훑어보고는 “黃泥街에서 죽은 물고기가 두 번 떨어졌어요. 일 년 내내 먼지가 떨어져 내리고요”라고 말했다.

(區長有一天來黃泥街作一次微服私訪－－區長突然決定要搞微服私訪。… … “黃泥街有沒有迫害案？”區長湊着一个老頭的耳朵問。“啊？”老頭的臉上變了色，后退兩步，仔細打量了他一會儿，說：“黃泥街落過兩次死魚，一年四季落灰。”)[78]

밀고와 감시라는 것은 당시 중국사회를 설명하는 데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당시 중국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피하고자 남의 죄를 고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 거짓 밀고하여 죽음에 빠뜨렸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殘雪은 ≪黃泥街≫를 통해서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하려 하였다.

2) 이기주의와 냉담함

文化大革命 시절의 사람들은 오늘의 이웃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불신하며 점점 차갑게 변해갔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에 둔감해졌고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이기주의를 가장 단순하게 묘사한 것은 거리에서 연탄재를 버리는 할머니에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의 행동이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비가 많이 왔다. 어떤 노부인이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 틈을 타 한 쓰레받기의 매연을 “매연은 괜찮아”라고 말하며 음식점 문 앞에 버렸다. 이 일은 금방 모든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 모두 사람들 몰래 행해졌지만, 결국은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말았다. 쓰레기는 날로 높이 쌓여가서 작은 산을 이루었다. 처음에는 매연먼지였지만 나중에는 썩은 야채이파리, 낡은 신발, 오래된 병, 아이의 대변

78)위의 책, 82 쪽-84 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등등이었다."

(后來有一天落大雨，有一个老婆子乘人不注意，將一撮箕煤灰倒在飮食店門口了，邊倒還邊說："煤灰不要緊的。"這一創擧馬上爲人所發現，接下去就有第二、第三、第四个也來干同樣的勾当。都是乘人不注意，但也都爲人所發現。垃圾越堆越高，很快成了一座小山。先是倒純煤灰，后來就倒爛菜叶、爛鞋子、爛瓶子、小孩的大便等。)[79]

사람들의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 음식점 앞은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 결국 비가 오는 날 쓰레기에서 나온 악취 나는 쓰레기 오수가 한 집 앞에 고여 버렸다. 그 집의 주인은 길길이 날뛰면서 분노했으나 어느 누구도 그를 위로하거나 잘못을 비는 사람은 없었다.

또한 등장인물들은 누구나 냉담했다. 냉담함으로 인해 세상은 더욱더 차가워졌고 인간관계마저 단절되었다. 이기적인 등장인물들은 사람이 죽어도 별 감흥이 없지만 자신이 죽는 것은 두려워한다. 가족관계라고 할지라도 늙어버리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여 경시 방치하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 한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생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黃泥街는 더더욱 차가운 세계가 되었다.

딸은 그에게 쌀밥 한 그릇을 던지듯 놓고 가버렸다. 노인이 몸을 일으켜 밥을 받아들고는 빗속에서 딸꾹질을 해대며 먹기 시작했다. 먹다 보니 이상한 맛이 느껴졌다. 그는 밥을 먹다말고 밥그릇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사람들의 악랄한 의도를 알게 되었다. 밥 그릇 바닥에 잘 익은 거미 한 마리가 묻혀 있었던 것이다. 그의 목에서는 수탉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목이 간지러워 만져보니 거미털 같은 것들이 목에 자라있었다.

"살아서 뭐해? 생고생이지 뭐" 라고 딸이 창밖에서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의 손자도 "노인네 하고는, 퉤!" 라고 했다.

(胡三老人頭撐起身子，端過飯，就在雨中吃了起來，邊吃邊打臭嗝。吃着吃着，吃出了一股怪味，他停下了，仔細地盯着碗里，悟出了家里人的險惡用心。原來在那碗底，是埋着一只蒸熟了的大蜘蛛。他的喉嚨里發出一聲雄鷄的啼叫。然后他覺得脖子上很痒，一摸，發現長滿了硬扎扎的毫毛。

79)위의 책, 3 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活着有什么意思？活受罪呢。”女儿隔着窗說，定睛看着她。“胡三老頭，呸！”孫子也隔着窗說。)[80]

黃泥街에서는 노인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밥이나 축내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늙은 사람의 사상은 오래되었고 배울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불효 행위는 단순히 경멸과 경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宋婆의 아버지는 갑자기 부엌에서 살아야겠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싱크대에서 대변을 보는 등의 기이한 행동들을 하여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했다. 宋婆는 아버지를 부엌에서 모시고 나가 보살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가 기이한 일들을 벌일 때마다 밥솥에 있는 밥을 덜어내었고 나중에는 텅 비게 되었다. 宋婆의 아버지는 밥솥에 묻어 있는 밥풀을 설거지물과 함께 먹었다. 그럼에도 배가 고파진 宋婆의 아버지는 자신이 대변을 본 싱크대에서 쌀알을 주워 먹었다. 노인은 말라가고 약해졌지만 죽지는 않았다. 宋婆는 그런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자신의 아버지를 경멸했다. 3개월 후 宋婆는 부엌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죽은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가족 그 누구도 애도하지 않고 그저 공포에 떨었다. 宋婆와 그의 남편은 아버지의 시체를 끌고 거리에 나가서 큰 종이상자에 넣고 강가에 버려버렸다.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들키지만 남편과 함께 변명하여 위기를 벗어났다. 이들의 냉담함은 결국엔 부친의 죽음을 불러왔다. 이를 단순한 방치라고 할 수 있을까? 殘雪의 외조모 역시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餓死하였다. 그녀는 이러한 사람들의 냉담한 태도의 결과를 小說 안에서 사실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날 거리에서 죄지은 사람을 잡아간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잡혀갈까봐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였지만 老孫頭가 잡혀가자 사람들은 단숨에 안정을 되찾고 종래에는 그의 존재마저도 잊어버린다.

“여러분 위에서 문서가 하나왔습니다.” …… S의 사람들은 일제히 허공을 향해 흰 눈을 부릅뜨고

80)위의 책, 49 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바들바들 떨며 서로 물었다. 물어본 후에는 머리를 쥐어짜며 두리번거렸다. …… 그날은 태양이 참으로 밝았다. 철문이 울리고 조사관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잡혀간 사람은 老孫頭였다! 어떻게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흥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눈을 까뒤집은 채 그 황색의 하늘을 째려보았다. 마치 고민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만 하다가 무의식적으로 대답했다. '老孫頭? 오, 있었어, 하!'

("同志們，上面來了一个文。"…… S的人們一式地朝空中瞪着白眼，哆哆嗦嗦地相互發問。問過之后，絞盡腦汁來想，東張西望，惶惶不安。 …… 那一天太陽特別亮。鐵門響着，查辦的人出其不意地來了。給抓去的竟是老孫頭！怎么想得到？！ …… 然而大部分人幷不激動。他們瞪着虛空的白眼望着那片黃天，似乎在想心事，想着想着不覺就說了出來："老孫頭？唔，有過的，哈！")[81]

또한 사람이 이유 없이 거리에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아도 죽어도 왜 죽었는지 궁금해 하지 않으며, 죽은 자를 애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인의 살아생전의 단점들을 말하며 흉을 보는 것도 서슴지 않게 행한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안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얼마만큼 차가워 질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張滅資는 아무도 모르게 죽었다. 정말 좋은 날이었다! …… 宋婆는 말라서 딱딱해진 가슴을 쳤다. "張滅資는 죽어서도 체면을 버리지 못하는군." "실은 張滅資에게는 문제가 아주 많아요.," 齊婆가 씩씩거리며 말했다. "일 할 때는 생각이라는 것도 안하고, 식탐만 밝히고 그리고 매일 쉰밥을 먹어요. 당신이 그와 얘기한다면 그의 입안에서 쉰내가 진동해서 당신을 못 견디게 할 거예요." 그녀는 말을 하면서 막대기로 죽은 시체 등에 있는 종기를 찔렀다. 몇 번 찌르자 종기에서 검은 물이 뿜어져 나와 악취를 풍겼다.

(張滅資不聲不響就死了－－眞選了个好日子！… … 宋婆拍一拍干巴巴的胸膛，"這張滅資，死也舍不下面子。"……"這張滅資其實很有問題，"齊婆气冲冲地說，"看事物沒頭腦，嘴又饞，還每天吃餿飯。你跟他講話，他嘴里就老是噴出一股餿飯味儿，冲得你受不了。"她說着說着就用一根棍子去戳死尸背上的駝峰，戳了几下，駝峰里就涌出黑水來，奇臭刺鼻。)[82]

죽은 사람의 시체의 고름을 터트리는 장면은 타인에 대한 고통에 무지해 졌으며 이러한 냉담함이 모든 사람들을 잠식했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黃泥街≫

81)≪黃泥街≫,16쪽·17쪽·18쪽.
82)≪黃泥街≫,34쪽·35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내용에는 이러한 고발이 수도 없이 나온다. 무서울 정도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행위는 독자 자신의 과거의 행동까지 반성하게 만드는 교훈을 준다. 이러한 냉담함과 이기주의적인 인물들의 묘사는 당시의 殘雪 자신 받은 상처와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대변하였다.

3) 야만성

"야만성이라는 것은 미개하고 문화적, 지적 수준이 낮은 상태를 일컫는다."[83] 黃泥街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어떠한 위생적, 의학적 교육을 받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다. 그들의 건강법은 두터운 솜옷을 입는 것이다. 한여름에도 감기에 걸릴까봐 솜옷을 입고 다니며 그런 그들의 몸에는 고름이 가득했다. 또한 상처가 나도 약을 바르지 않았다. 약을 바르면 자신의 몸이 독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미개함은 또 다른 병을 생기게 하며 자연치유가 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小說 속거리의 환경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쓰레기를 모두 강에 버렸는데 강마저 오염이 되어버렸다.[84]

그래서 쓰레기 처리장을 거리 안에 설치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쓰레기 처리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길거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무단 투기를 하였다. 모순적인 것은 거리 사람들이 환경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공장장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거리 안에 쓰레기 처리장을 철치 하였지만, 그들은 투덜대며 쓰레기처리장을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공장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 위생에 대한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공장 뒤에 있는 연못에 동물들의 사체가 떠다녀도 건져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연못이 온갖 쓰레기로 검게 물들어도, 공장 공원에 해골들이 묻혀 죽음의 공간이 되어도, 작업장 주변에서 고철이 썩고 있어도 그곳에 물건을 버리기만 할 뿐 잊어버렸다는 핑계로 계속 방치하기만 하였다.

"공장입구에는 못이 하나있다. 사람들은 "清水塘"이라고 불렀지만 물은 전혀 맑지 않고 시커멨다.

---

83)≪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84)≪黃泥街≫,3 쪽. "黃泥街上人家多，垃圾也多。先前是都往河里倒，因为河水流得快，一倒进去就流走了，干干净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위에는 기름이 둥둥 떠다녔고 악취가 흘러나왔다. 못 주변에는 방직공장의 폐기물과 쇠 부스러기가 가득 쌓여있었다. 그것은 못 바닥까지 계속 쌓여있었다. 누구도 물고기 같은 것들이 저 썩은 물속에 살아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장구벌레조차도 그 죽은 물에서는 살지 않았다. …… 작업장 밖은 모두 물건들이 쌓여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놓은 것들이었다. 버리고서는 잊어버렸다. 폐기된 선철기계의 본체와 기포받침과 불량 스틸 볼이나 이가 나가버린 니퍼와 펜치 그런 것들이 바닥에 묻혀있거나 쌓여있었다. 해가 비치고 비가 오면 그것들은 진흙으로 한 몸처럼 섞였다. 사람들 역시 이 물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진흙이 되어버리는 것이라 여겼기에 선뜻 정리하려 하지 않았다.

(厂門口有一口塘，人們叫它"清水塘"。其實水一点也不清，烏黑烏黑的，上面浮着一層机油，泛着一股惡臭。塘邊堆滿了廢棉紗和鐵屑，一直堆到塘底。誰也不曾看見魚類在這死水中生存，就連孑孓也不在這死水中生存。…… 車間外面到處是一堆一堆的東西，那是人們隨手扔在那里的，扔了也就忘了。一个報廢的生鐵机床床身，一个生了气孔的底座，一堆銹坏的鋼球，几只缺了口的老虎鉗，一堆生鐵鐵屑，一律長着厚而松脆的褐銹，有的又半截埋在地下，日晒雨淋，就与泥土混爲了一体。人們也認爲這些東西終將化爲泥土，也就樂得懶去收拾了。)[85]

사람들의 무책임함과 방치로 인해 거리의 환경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아무런 감흥 없이 더럽히기만을 반복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은 당시 중국에서 문명에 미개했던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준다. 또한 등장인물들의 현대의학 거부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은 더 심각한 질병을 불러 일으켜 거리에 전염병과 악성종양이 창궐하게 되었다. 이러한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사람의 몸에 얼마나 독이 되는지, 그 부정적인들을 모습을 고발함으로써 문명적인 소양을 쌓으라고 권유하였다.

2. 作家의 무의식 표출

무의식은 의식 가장 바닥에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무의식은 집중을 한다면 그것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으며 무의식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85)≪黃泥街≫, 7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殘雪은 원시적인 충동에 의거하여 창작을 한다고 말하였다.[86] 그것은 그녀의 무의식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며, 이러한 무의식은 고도의 집중력을 통해 지옥과도 같은 초현실적인 세계를 창조해 내었고, 등장인물들의 정신상태를 억지로 혼란에 빠뜨렸다. 殘雪은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자신의 의식상태를 考察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평소에는 의식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범위를 확장시켜 인간의 본성과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했다. 그리하여 욕망, 파괴성, 두려움 등 추악하거나 나약한 감정은 원래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임을 독자들에게 설파한다. 무의식 탐구는 ≪黃泥街≫뿐만 아니라 그녀의 여타 다른 作品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집요한 그녀의 무의식탐구는 자아발견으로 이어져있다. 作家는 그 안에서의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考察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였다. 무의식은 조금 변할 수 있지만 다른 것과는 바뀌지 않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솔직한 마음의 소리이다. 그러한 무의식 탐구에 집중한 그녀는 본인의 상처와 잠재되어 있던 광기 그리고 뿌리 깊은 허무함과 생존에 대한 갈망 등을 찾아내었고, 그녀는 그것들을 作品에 투영시켰다.

1) 인간의 본질

殘雪은 이러한 作品을 창작하는 이유로 "인간 세상에 대한 특별한 계획 때문이라고 말하며 지옥 속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인류에 대한 흥미가 있었다."는 점을 든다.[87] 殘雪은 인류의 본질과 본능이 무엇인지 알아 내려하였다.[88] 그녀는 일부러 지옥과도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부정적인 인물을 만들어 내어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나쁜 것들로 가득 차있고 그것이 인간의 본능임을 깨닫는다. [89]

---

86)≪为了报写小说 -与残雪谈写作≫, 439쪽.

87)위의 책, 440쪽. - 我写这种小说完全是人类的一种计较，非常念念不忘报仇，情感上的复仇，特别是刚开始写的时候，计较得特别有味，复仇的情绪特别厉害，另一方面对人类又特别感兴趣，地狱里滚来滚去的兴趣。

88)≪为了报仇写小说：残雪访谈录≫, 93쪽. "这些文字的初衷是为了我自己，为了理解本质的我，也为将来我写自己作品的评论做准备。"

89)≪为了报仇写小说：残雪访谈录≫, 86쪽. "请注意一点：凡是那些最褴褛、最"负面"的人物，往往是最本质、层次最深、凝聚了最多激情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黃泥街에는 개가 미친 것 같다며 몽둥이로 때려죽이는 사람, 닭의 발만 자르러 다니는 사람,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사람 등이 있다. 그들은 하나 같이 잔인하며 자신의 행동에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를 굶겨 죽이고 그 시체를 강물에 버린다. 금이 나올지도 모른다며 멀쩡한 벽을 마구 깨부수거나 쓰레기더미에 놓인 아이의 시체를 뒤진다.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실제 생활에서는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되지만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모두 이러한 잔인한 폭력성과 욕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것들은 평소에 잠들어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의식 밖으로 나와 행동에 옮겨질 것이다. 그것은 과거 홍위병이었던 한 여성의 인터뷰만 봐도 알 수 있다. ≪文化大革命≫을 보면 아래와 같은 인터뷰가 있다.

> "그녀는 처음에 자신의 친구가 허리띠로 희생자가 피에 흠뻑 젖을 만큼 매질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놀랐지만 낙오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억지로 버티자 자신도 곧 무덤덤하게 허리띠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때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다른 홍위병은 처음에 사람을 때리기 시작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나중에 가서는 어느 누구보다 세게 때릴 수 있었으며 다른 친구가 아무리 세게 때려도 나는 그 친구보다 더 세게 때릴 것이다."[90]

결국 인간의 본질탐구에서 나오는 결과는 겉으로 들어나지 않는 공격성, 파괴성, 잔인함, 냉담한 모습들과 같은 인간의 추악함이다. ≪黃泥街≫에 나온 그들의 공격적인 모습과 냉담한 모습들은 비이성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파괴적인 본능들은 ≪黃泥街≫의 小說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알려준다. 殘雪은 作品 안에서 독자들에게 이러한 본능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그러한 본능을 늘 경계하며 대항하라고 알려준다.

2) 생존에 대한 태도

殘雪은 등장인물들의 세상에 대한 절망과 허무의 태도와 같은 부정적인 면과

90)≪문화대혁명≫,145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반대로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버티며 이상의 추구를 계속해서 갈망하며 살아가는 긍정적인 면 두 가지의 인간의 생존상태를 그려내었다.

陳思和는 “마음에 빛이 있을 때 어둠이 어두워진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현실의 잔혹함과 인간성의 추악함에 대해 항쟁하는 생명의 빛이 잔설의 作品 속에 불타오르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를 투영하여 초현실적인 인간사회의 여러 면모를 드러내었다. 그녀의 小說 안에는 현실의 잔혹함과 추악한 인간성에 좌절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생명의 빛이 존재한다.”[91]고 하였다. 이렇듯 그녀의 작품에서는 밝은 면이라는 긍정적인 생존상태와 어두운 면이라는 부정적 생존상태라는 두 가지의 모습이 모두 존재한다.

부정적인 생존상태는 현실의 잔혹함에 부딪힌 자아의 절망을 나타낸다. 小說 안에서 거리 사람들은 王子光의 존재를 그들의 구원자로 이상화 시켰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를 믿지 못하고 조금씩 절망하고 있었다.

王子光이 등장하기 전 한 거리의 여인은 춤을 추었다. 그러자 쥐떼들이 나타나 큰 소리를 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깨닫고 대성통곡을 하였다.[92]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등장한 王子光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매우 차가워져있었다. 그들의 이상이 실체화가 되었는데도 기뻐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이러한 이상적 존재를 마주치지도 못한 채 떠나가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뒤늦게 그의 존재를 찾아 나서지만 이미 없어져 버린 지 오래였다. 그들의 절망은 극에 달했으며 자아의 절망은 세상에 대한 단절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세상과 단절했으며 공장사람들 역시 슬픔에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두고 공장과 단절했다. 殘雪의 어린 시절도 그러했다.[93] 이유 없이 존재에 대한 가치가 부정당하고 무시당하는 등 잔혹한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녀는 단절하거나 단절당하면서 부정적인 태도로 생존했다.[94] 같은 시기

---

91)≪중국당대문학사≫ 368쪽.

92)≪黃泥街≫,12쪽. “袁四老娘腰缠一块猩红色的绸子出现在马路上。当她跑起来的时候，成群结队的大小妖鼠从山上向这条街道俯冲下来，脚步如石子落地嘣嘣作响。小屋里的人都戴上黑色眼罩探出头来，偏着头听了一会儿，忽然就呜呜地哭泣了，声音响彻天宇…… ”

93)<찬쉐(殘雪)소설론>, 170쪽. “뜻하지 않는 정치적 싸움에 휘말려 부유했던 어린 시절은 짧게 끝이 났다. 부모님은 각기 강제노동을 하였고 그녀를 길러준 외조모마저 殘雪을 보살피다가 餓死한다. 문화대혁명의 발발로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이다. 그 후 10년 동안 공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간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 사람들 역시 그러했을 것이며 몇몇은 끝이 없는 절망에 괴로워하며 세상과의 단절을 시도했고 그것은 자살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허무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거리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존재가 될 뻔 했던 인물 세 명이 등장했다. 한명은 죽어버린 王子光, 또 한명은 동문서답만 하는 공장장, 마지막 한명은 무능력한 區長이다. 王子光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구원의 존재를 찾아 나섰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S기계공장의 공장장이었다. 거리 사람들은 공장장에게 가서 王子光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졸랐다. 하지만 공장장은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다며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고 화장실을 없애버려야겠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였다. 사람들은 화장실이라는 중요한 장소를 잃어버릴까봐 겁이나 王子光에 대해 부탁하려던 것은 잊고 화장실을 보존시킬 생각에만 집중하였다. 그러자 공장장은 선심 쓰듯 화장실은 보존 시켜준다며 말을 돌렸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다른 문제를 만들어 거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공장장에게 실망한 사람들은 그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렸다. 마지막 한명은 실제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區長이었다. 그들은 평소에도 보기 힘들었던 區長이 등장하자 병적으로 집착하였다. 현존하는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區長은 감기에 걸렸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잤다. 능력이 부족했던 區長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거리의 더러움에 병을 얻어 겁을 먹었고 결국 실패로 끝을 맺었다. 거리 사람들은 3번이나 연달아 실패가 일어나자 절망이 너무 깊어져버렸다. 黃泥街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거리의 생명은 며칠남지 않았다고 슬퍼하였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떠한 존재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희망하지 않으며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허무의 상태에 빠져버렸다.

하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생존해나갔다. 老孫頭는 세상을 변할 것이지만 반드시 긍정적 이여야한다고 이야기하였다. 殘雪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긍정적인 생존형태이다. 거리에서는 어느 것 하나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없었다. 주변에는 감시하고 염탐을 일삼으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물들이 가득했다. 야만적인 문명수준의 사람들은 거리에서 거리낌 없이 자신의 공격성과 파괴

94)<殘雪의 모더니즘 소설연구>,13쪽. "초등학교 때, 그녀는 '右派' 의 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다. 수업시간에 출석을 부를 때 대답하는 것 이외에는 침묵하며 말하지 않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성을 드러내며 그것을 본 사람들의 두려움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은 가지지 않았다. 마을을 찾아온 점쟁이가 자신은 오래 살 것이라고 점지해주어 기뻐하는 사람이나 죽어서 시체가 되었지만 관 속에 들어가 영면하지 않고 썩어 가는 몸으로 거리로 돌아와 지독하게 삶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의 형상은 깨어날 수 없는 악몽 같은 현실에 좌절은 할지언정 그래도 처절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3) 자아의식과 자아실현

무의식 탐구라는 것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나 자신을 찾아내는데 의의가 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가. 등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즉, 자아를 탐구한다는 것이다. “자아는 자기 자신을 정립하는 것”[95]이며 이는 데카르트(Descartes, René, 1596-1650)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와 같은 의미의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와 이어져있다. 자아의 의식을 탐구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조금 더 나은 나 자신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에리히 프롬은 “현대인의 비극이 소외에서 시작한다고 하였으며 가장 심각한 소외는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것”[96]이라고 하였다. 즉 자신의 자아,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제일 비극인 것이다. 철학서를 탐독하였던 殘雪은 이러한 ‘자아’에 대한 질문을 자신에게 무수히 던졌다.[97]

≪黃泥街≫에서 나타는 자아의식 탐구의 목적중의 하나는 자신이 받은 상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며 복수의 대상에 대한 탐구이다. 흉흉했던 사회시기에 안식처가 없었던 그녀의 불안한 마음, 고발하고 고발당하며 무차별적인 감시와 염탐을 당하며 느꼈던 수치심, 지독한 폭력의 세계와 냉담한 인간관계에 殘雪은 대상 없이 복수심만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小說 속에서 신경증에 걸린 것처럼 끝없는 불안과 걱정을 하며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듯한 모습, 다른 사람이 사라지거나 죽어도 동요하지 않는 그들의 무관심함을 표현해어 그것을 찾고자 하였다. 그녀는 무수히 많은 상처들을 받고 분노하였고 이러한 분노는

95)백훈승,≪칸트와 독일관념론의 자아의식론≫,서광사,2013, 188쪽.
96)찰스 퍼니휴, 박경선 譯, ≪내 머릿속에 누군가 있다≫,에이도스출판사,2018, 6쪽.
97)≪为了报仇写小说：残雪访谈录≫, 162쪽. “阅读就是寻找自己创作的一个参照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공격적인 모습과 파괴적인 모습의 사람들의 형상을 그려내었다. 그들의 공격적인 모습은 자기방어를 위에 싸우는 공격적인 행위 즉, 밀고와 감시의 형태로 드러났으며, 미친개라는 이유로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사람들의 팔을 자르고 다니는 등의 파괴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다른 목적은 자아의 실현을 위한 무의식 탐구이다.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들은 그저 잠꼬대처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이상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은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하지 못한다. 그들은 막연히 무의식에서 해방되고 싶으며, 더러운 黃泥街의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지 어떠한 방식으로 왜 벗어나고 싶은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자아의 실현은 자아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며 黃泥街의 거리 사람들이 결핍되어 있는 요소이므로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殘雪은 그들에게 자아실현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小說 안에서 보여주어 독자들에게 반대로 그것을 발견하라고 말하였다.[98] 殘雪은 黃泥街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태양이 지고 있는 석양의 모습을 주며 “이 세계는 친절하고 상냥하다.”[99]라고 알려주며 희망을 보는 話者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추악한 세계에서도 따듯함은 반드시 존재하며 그러한 존재를 느끼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실존의 대상을 무의식이라는 탐구를 이용해 형상화 시켜, 그것을 찾아내라고 조언하였다.[100]

---

98)≪为了报仇写小说：残雪访谈录≫, 271쪽. 当纯文学的探索开始之际，写作者立刻会发现自己站在了已经存在的自我的对立面，这个自我是由文化、社会、教育等一系列因素的作用构成的表层的自我。这些因素坚不可摧，聚成铜墙铁壁。如果人要进行纯度很高的创造，他就必须调动深度的潜力，战胜旧的自我，到达空无所有的极境。

99)≪黃泥街≫,153쪽. “夕阳照耀，这世界又亲切又温柔。苍白的树尖冒着青烟，烟味儿真古怪。在远处，弥漫着烟云般的尘埃，尘埃裹着焰火似的小蓝花，小蓝花隐隐约约地跳跃。”

100)≪为了报仇写小说：残雪访谈录≫, 73쪽. “也许是潜意识里的自我渐渐强大起来，我开始了摆脱一切束缚，踏上漫长的灵魂探索之路的历程。也许作为女性，灵魂上的那一层硬壳相对薄一点，所以更容易达到内部深层的无意识吧。从个人来说，我探索的是自己的灵魂，但对读者来说，那会是谁的灵魂呢？”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Ⅴ. 결론

殘雪은 先鋒派의 대표作家 중의 한명으로,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다. 중국의 본질을 몽환적으로 표현해내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인물이다. 그녀의 小說은 몽환적이며 실험적인 요소와 변태적인 요소가 가득하다.

어린시절에 右派라며 집안이 멸시를 당하였으며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한 殘雪은 巫楚文化를 숭배하는 외조모 밑에서 자랐다. 이러한 불우하고 특별한 어린 시절은 잔설에게 끝이 없는 복수심을 만들어내어 창작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하였고 作品 속에서는 몽환적이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드러낼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作家들과는 차별된 그녀의 개성이다.

그녀는 作品에서 무의식과 혐오의 행동을 표현해내었다. 단편小說<山上的小屋>·<阿梅在一个太陽天里的愁思>와 ≪黃泥街≫를 비교해 보았을 때 기존의 作品들이 무의식의 세계의 빠져있는 등장인물들을 표현하는 것과는 달리 “꿈”을 통해 作品 전체에 드리워져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해내었다.

또한 先鋒作家들이 살인과 성적인 묘사로 혐오의 행동을 표현하였다면 殘雪은 더러움과 특이식성이라는 엽기적인 행동으로 혐오의 행동을 표현하였다.

作家는 作品을 통해 중국사회의 문제에 대한 고발을 하였으며 그것은 인간관계의 냉담함, 이기주의, 감시와 밀고, 야만성이 있다. 作品 내에서는 路線, 造反派와 같은 文化大革命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어휘나 단어들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殘雪이 文化大革命의 영향을 받았고 ≪黃泥街≫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作品을 통해 무의식을 표출하여 자신이 창작을 하게 된 계기인 ‘복수’의 대상을 찾으려고 노력하였고 인간의 본질이 추악하다는 것을 알려주어 긍정적인 생존상태와 부정적인 생존상태를 나타내었다. 陳思和가 ≪중국당대문학사≫에서 말한 것처럼 그녀는 절망 속에서 생명의 존재를 유지하고 허무와 비관 속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갈망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參考文獻

殘雪, ≪黃泥街≫,花城出版社,2013.

殘雪, ≪從末描述過的夢境≫,作家出版社,2004.

殘雪, ≪爲了報仇寫小說：殘雪訪談录≫,湖南文藝出版社,2003.

거훼이외, 김영철 譯, ≪깡디스 산맥의 유혹≫,나남출판사,2011.

프랑크 디쾨터, 고기탁 譯, ≪문화대혁명≫,열린책들,2008.

백승욱,≪문화대혁명 중국현대사의 트라우마≫,살림출판사,2007.

김경남,<찬쉐(殘雪)소설론>,한국외국어대학교중국연구소, 중국연구 제33권, 2004.

손미령, <殘雪의 모더니즘 小說 硏究>,한국외국어 대학교 석사,2006.

송세봉,<殘雪的'文革'叙述>,한중언어문화연구 제 20권, 2009,

代苗雪,<論新世紀殘雪小說創作的變化>, 安徽師范大學,2015.

천쓰허,노정은·박난영 譯,≪중국당대문학사≫,문학동네,2008.

장윤선,<先鋒小說에서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인문논총 제 22권, 200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